한국학 제43권 제3호 통권 160호 65-115쪽
doi: 10.25024/ksq.43.3.202009.65

조선후기 지도와 기록화를 통해 본 제주

정은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미술사 전공
jeje387@hanmail.net

Ⅰ. 머리말
Ⅱ. 제주지도의 변천과 특징
Ⅲ. 제주 공마 목장의 운영
Ⅳ. 제주 지방관의 순력과 명승
Ⅴ. 맺음말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9-C08).

www.kci.go.kr

Ⅰ. 머리말

제주도는 조선후기 가장 많은 지도가 제작된 도서(島嶼)이다. 그 이유는 국가에 공납하는 공마(貢馬) 목장이 분포한 지역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다른 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찬된 제주지도에는 국가의 지방 지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국가의 통치력과 공마 목장의 운영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상세히 반영되었다. 한편 제주목사가 순력의 결과로 제작한 기록화와 실경도는 국가 정책과 통치행위를 적극 반영하여 조선후기 제주를 연구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지도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지도의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1], 기록화와 실경도는 미술사학계, 경관지리학계와 조경학계에서 명승과 경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2] 또한 역사학계에서

---

1 제주의 고지도가 집대성되는 계기는 『제주의 옛지도(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편, 1996)가 발간되면서 비롯되었다. 조선에서 제작된 제주지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찬,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지리학과 지리교육』 9(1979), 1-12쪽; 이상태, 「제주도 고지도 연구」, 『아세아문화연구』 제1집(1996), 205-232쪽; 양보경, 「제주 고지도의 유형과 특징」, 『문화역사지리』 13-2(2001), 81-99쪽; 18-19세기 제주도 고지도에 대한 연구로는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2004), 1-11쪽;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 고지도의 현황과 유형별 특성」, 『제주도연구』 53(2020), 187-223쪽; 고지도에 나타난 하천 묘사를 통한 지도 계열을 분류한 연구는 김기혁, 「17-18세기 제주도 고지도의 하천 묘사에 나타난 지도 계열 연구」, 『문화역사지리』 30-2(2018), 46-74쪽 참조.

2 제주 실경을 그린 기록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홍선표, 「《탐라순력도》의 기록적 의의」, 『조선시대회화사론』(문예출판사, 1999); 『탐라순력도 연구논총』(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편, 2000); 이보라, 「17세기 말 〈탐라십경도〉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17(2007), 69-90쪽; 윤민용,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3-1(2011), 43-62쪽; 한편 기록화 속 제주 지형경관과 지명에 대해서는 김오순,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교

www.kci.go.kr

는 문헌 사료와 읍지를 통해 제주의 목장과 마정(馬政)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3]

따라서 본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제주지도와 기록화를 중심으로 문헌 사료와 비교 검토하여 역사적, 문화사적 관점에서 조선후기 제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먼저 조선시대 제주 지도와 지도의 주기(註記), 기록화 및 실경도를 분석하여 그 시기별 특성과 변화 과정을 파악하려 한다. 관찬 제주지도는 조선시대 제주에 대한 통치와 관방, 경제적 측면의 인문정보를 반영하고 있어 제주에 대한 당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제주목사가 주관하여 제작한 기록화는 조선시대 제주의 마정(馬政)은 물론, 지방관의 순력과 명승 인식 등 당대 제주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의 실경을 그린 작품 중 대표적인 것은 1694년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 1668-1704)가 제작한 『탐라십경도』의 후대 모사본 3점이 전하며, 1703년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제작한 『탐라순력도』가 현존한다. 『탐라십경도』는 조천관, 별방소, 성산, 서귀포, 백록

육과학연구』 8-2(2006), 133-150쪽; 김태호, 「옛 그림 속 제주의 지형경관 그리고 지형인식」, 『대한지리학회지』 52-2(2017), 149-166쪽; 노재현 외,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조경학회지』 37-3(2009), 91-104쪽; 오창명, 「탐라십경도의 제주지명」, 『지명학』 26(2017), 147-181쪽.

3 제주마와 馬政에 대한 연구는 남도영, 『濟州島 牧場史』(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박찬식, 「17·8세기 제주도 牧子의 실태」, 『제주문화연구』(1993); 원창애, 「조선시대 제주도 마정에 대한 소고」, 『제주도사연구』 4(1995), 45-55쪽; 제주지도를 활용한 목장 범위에 대한 연구는 송성대·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영목장의 범위와 경관」, 『문화역사지리』 13-2(2001), 143-159쪽;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 耽耽羅誌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1(2001), 43-81쪽; 고려시대 원의 목장운영과 관련하여 전영준, 「13-14세기 원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 변화」, 『제주도연구』 40(2013), 49-78쪽;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2016), 67-99쪽; 陳祝三, 「蒙元과 濟州馬」, 『탐라문화』 8(1989), 133-154쪽 참조.

www.kci.go.kr

담, 영곡, 천지연, 산방, 명월소, 취병담 등 제주의 절경을 그린 것으로, 17세기 말 산수 유람과 명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목사 이익태가 십경을 직접 선택한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후 부임한 이형상은 명승에 그치지 않고 제주목의 주요 행사나 가을 순력 등 제주목사의 공적 행사와 제주의 특산물, 풍속 등을 묘사하여 기록 이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제주지도의 변천과 특징

기록에 의하면, 제주의 지형을 그린 가장 오래된 지도는 1007년(고려 목종 10)에 제주도 비양도[瑞山]의[4] 용암이 분출하자 태학박사 전공지(田拱之)가 산 아래서 그 형상을 그려 바친 지도라고 할 수 있다.[5] 이후 행정·군사적인 측면에서 제주를 그린 단독지도는 1482년(성종 13)에 양성지가 제작한 제주삼읍도(濟州三邑圖)이다.[6]

본문에서는 현존하는 제주지도 중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목판 및 필사로 제작된 대축척 단독지도와 지방관의 순력 결과로 그린 제주지도, 『해동지도』와 같이 18세기 후반 이후 제주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준 관찬 군현지도첩, 그리고 지도 제작 역량을 축적하여 김정호가 제작한 대축척 제주지도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7]

---

4 李瀷, 『星湖僿說』 권1, 天地門, 「飛颺島」.

5 『고려사』 권55, 志9, 목종 10년.

6 『성종실록』 138권, 13년 2월 13일(임자).

7 읍지도와 사찬지도를 포함한 현존 제주지도의 전체 현황과 유형 분류는 오상학(2020), 앞의 논문, 190-193쪽, 표1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 현황 참조.

www.kci.go.kr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촉(漢拏壯矚)」은 주기에 1702년 4월 15일 제주 지방관 현황을 담고 있어 현존하는 제주지도 중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제주목이 하단에 위치하였고, 정의현과 대정현이 상단 좌우에 위치하여 제주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도1). 화북·조천·별방·수산·서귀·모슬·차귀·명월·애월진 등 9개 진(鎭)의 위치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밖에 목장, 산악, 도로, 마을, 하천을 비롯한 80여개의 포구 명칭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중 목장은 10소가 아닌 현자장(玄字場), 황자장(黃字場), 목일소장(牧一所場), 목삼소장(牧三所場), 대이소장(大二所場), 대삼소장(大三所場) 등으로 기록하여 구분하였고, 봉수 25개소와 연대(煙臺) 38개는 위치만 표시하였다. 제주도 주변에 전통적인 24방위를 붉은색으로 둘러 표시하였다. 지도 아래가 제주 북쪽으로 전라도와 소속 섬이 있고, 제주 바다 서쪽에 중국 산동·절강·복건성의 지명이 보인다. 지도의 위가 남쪽으로 섬라국, 교지국, 류큐국, 여인국, 일본의 이키섬이 보이고, 서쪽에 일본이 위치해 있다. 여인국 같은 비현실적 지명도 보이지만, 지도 사방의 방위에 따라 주변국의 지명을 써넣은 것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안 항로를 이용한 공물 운반, 공무나 장사를 위해 육지를 왕래하다가 표류하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8]

지도의 주기에는 동서, 남북, 대로의 둘레뿐만 아니라 위 지역과의 거리를 리수(里數)로 표시하였다. 이는 제주도의 특성상 타국으로의 표류나 국내에서 조난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9] 『탐라순력도』의 서문에도 전통

---

8 1483년 중국 양주 지역을 표류한 정의현감 李暹 일행, 1488년 중국 임해현에 표착한 崔溥, 1542년 유구국을 표류한 朴孫 일행, 1687년 안남국을 표류한 고상영, 1771년 안남을 표류한 張漢喆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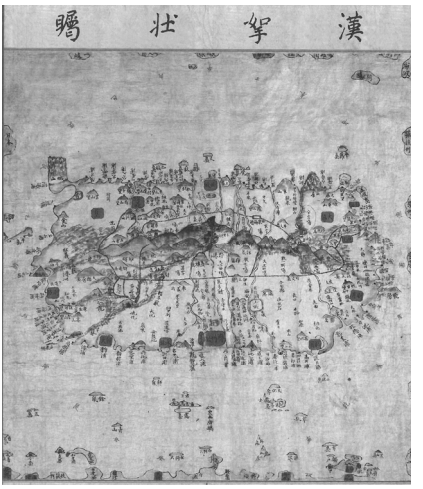
9 『남환박물』에서 외국 각지까지 노정은 타국에서 표류해온 사람들과 제주도 漂還人 등의 전언을 기초로 한 것이라 밝힌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찬(1979), 앞의 논문,

www.kci.go.kr

24방위에 따른 주변국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 남해 가운데 작은 땅이 있어 북극까지 거리가 가장 가깝고, 춘추분에는 한라산에 별이 나타나니 대개 외딴 지역이다. 북으로는 전라도와 접하고 동으로는 일본과 인접하였다. 그 병향(丙向)에는 여인국, 오향(午向)은 대소유구국이다. 정향(丁向)에는 교지국, 안남국이다. 곤향(坤向)에는 민구[閩甌 복건·절강성]이다. 그 밖에 섬라, 점성, 만랄가[말라카]이다. 신향(申向)에서 해향(亥向)은 오(吳)·초(楚)·월(越)·제(齊)·연(燕)의 경계이다.[10]

『탐라순력도』와 함께 이형상의 종가에서 소장했던 목판본 「탐라도」는 동해방호소(東海防護所)가 혁파된 1678년 이후부터 적어도 이형상이 1703



도1-「한라장촉」,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도2-「탐라도」, 1703년 이전, 제주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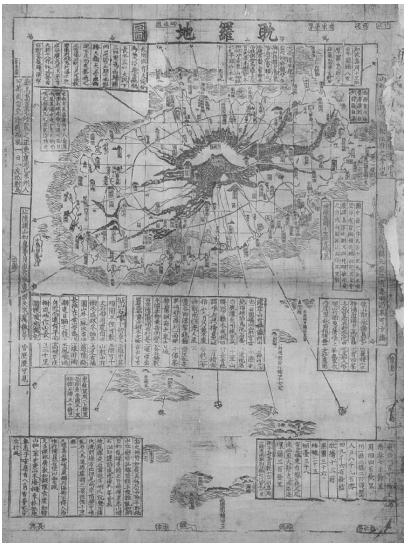
2-3쪽.

10 이형상, 『병와집』, 「탐라순력도서」 부분. "黑子於南海中, 去極最近, 春秋二分, 星見於漢拏山, 槩絶域也. 北接全羅, 東隣日本, 其丙女人也. 其午大小琉球也, 其丁交趾也安南也, 其坤閩甌也, 其外暹羅也占城也滿剌加也, 自申而亥, 爲吳楚越齊燕之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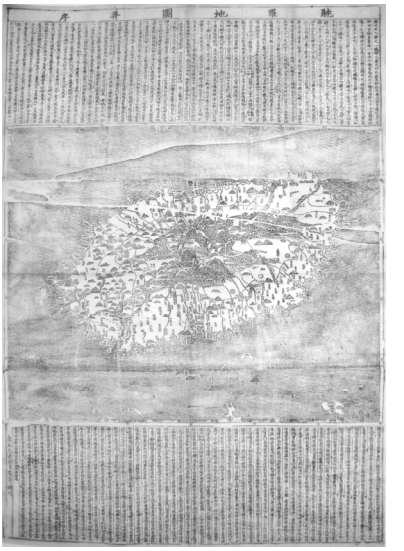
www.kci.go.kr

년 6월 체임되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11] 지도의 하천 유로와 지명 정보가 거의 유사하여 『탐라순력도』 「한라장촉」의 저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도2).[12] 제주 지형은 「한라장촉」보다 좌표가 있는 목판본 「탐라지도」에 가깝고, 주기에 의하면 국마 59둔, 포구 85처, 연대 37처, 과원(果園) 39처로 나타나 1709년 제작된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보다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 〈탐라지도〉는 정간(井間)을 이용한 축척식이고 백록담을 중심으로 사방에 24개의 방위각선을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도3).[13] 섬 사방의 바다는 수파문양을 이용하여 육지와 섬의 경계를 표시하



도3-「탐라지도」, 1706년경, 목판본, 73×65cm,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도4-「탐라지도병서」, 1709년, 목판본, 98×125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 오상학(2004), 앞의 논문, 2쪽.

12 김기혁(2018), 앞의 논문, 58-59쪽.

13 이 지도는 좌표와 방안으로 인해 이찬 교수에 의해 '耽羅座標圖'로 소개되었으나, 본문에서는 원래 명칭인 '耽羅地圖'로 지칭하려 한다. 이찬(1979), 앞의 논문, 4-9쪽.

www.kci.go.kr

였다. 지도 여백의 주기에는 책판 형태의 테두리 안에 성산석성, 백록담, 가파도, 마라도, 천제담(天帝潭), 천지연 등의 둘레와 거리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대마도에 대한 주기에는 1679년(康熙己未)에 제주인 전만성(田萬成)이 대마도에 표류한 일을 기록하였다.[14]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목판본 「탐라지도」가 2017년 소개되었는데, 지도 하단 중앙에 "康熙丙戌刻"이라고 판각하여 1706년에 제작된 것을 밝힌 점이 차이를 보인다.[15]

1709년 제작된 「탐라지도병서」의 상단과 하단 주기는 모두 선으로 구획하여 기록하였는데, 각 고을의 연혁, 도리, 인구, 군사, 재정 등의 관련 기록과 명승고적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18세기 초 제주의 현황을 상세히 보여준다(도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동서와 남북에 이르는 거리를 기록하였고, 목장은 제주목에 7곳, 정의현에 3곳, 대정현에 3곳으로 총 13곳이며, 봉수는 25곳, 연대는 38곳, 과원은 40곳, 방호소는 9개소이다. 그밖에 마을이 150곳, 총 호구는 8,955호이며, 인구는 총 45,129명으로 제주목 33,585명, 정의현 7,459명, 대정현이 4,085명이라 적혀 있다. 또한 내용 중 '新地圖'와 '舊地圖'를 운운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제작된 제주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탐라지도병서」에는 최부(崔溥, 1454-1504)의 표류를 비롯한 김려휘, 전만성 등의 유구와 대마도 표류 사실과 경계를 접한 주변국 지명을 상세하게 소개하였고, 당시 제주도에 동남아시아의 주변국 상선(商船)이 물과 연료를 구하기 위해 빈번하게 경유하였음을 밝힌

---

14 혜정박물관 소장 「탐라지도」는 선행연구에서 1706년(숙종 32)에 송정규 목사가 遮歸防護所를 만호진으로 승격시켰는데, 1716년 黃龜河 어사가 다시 방호소로 강등했던 점을 들어 차귀와 수산에 만호진이 표기된 것을 근거로, 1706-1716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오상학, 「목판본 「탐리지도」의 내용과 지도학적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16-2(2016), 15-16쪽.

15 하단 주기 중앙에 '康熙丙戌刻'이라 새겨진 「탐라지도」 목판본은 2017년 6월 4일 KBS 〈TV쇼 진품명품〉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www.kci.go.kr

점이 흥미롭다.

> 서남쪽에 백해(白海)가 있는데 최부가 표류하여 태주에 도착하였을 때 백해를 지났다. 동남쪽에 흑해가 있는데 해남 선비 김려휘(金麗輝)가 표류하여 유구에 이르렀을 때 제주에서 5일 만에 흑해에 이르렀다. 물빛이 먹 같아서 떠 보니 평범한 물과 다름이 없었고 물건을 물들이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정동(正東)에 대마도가 있는데 선비 전만성(田萬成)이 동쪽 완도[餘鼠]에서 서풍을 만나 하루 낮밤을 표류하여 대마도에 이르렀다. 북쪽 육지의 무등·월출·천관·달마·대둔·만덕 등 모든 산이 역력히 보인다. 해외 국가인 일본, 대소유구, 여인, 안남, 캄보디아[交趾], 관동, 복건, 태국[暹羅]와 중국의 절강, 산동, 영파, 개봉, 송강, 등주, 내주, 청주, 양주, 소주, 항주 등지는 비록 서로 바라볼 수 없으나 경계가 접하고 죽 늘어서서 의지하여 어렴풋이 아득한 중에 가리킬 수 있으니 호쾌한 유람과 큰 볼거리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다른 나라 상선이 항상 오가며 바다 가운데나 혹은 이 섬에 배를 대어서 물을 빌리거나 땔나무를 찾는다.[16]

하단의 말미에는 "강희 기축년 정월 이모(李某) 등이 간행하다[康熙己丑正月李等開刊]"라는 간기가 있어 1709년의 상황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행자를 '李等'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1706년 9월 제주목사로 도임하여 1709년 5월 이임한 이규성(李奎成) 등이 주관하여 제작했을 개연성이 높다.[17] 주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방에 위치한 외국의 지명을 상세히 기록

---

16 「탐라지도병서」의 일부. "○西南有白海, 崔溥漂到台州時, 過白海云. 東南有黑海, 海南士人金麗輝漂到琉球時, 自濟州五日, 而至黑海, 水色如墨, 掬而視之無異. 凡水亦不染物云. 正東有對馬島, 本島士人田萬成, 自東餘鼠過西風一日一夜漂到對馬島. ○北陣諸山如無等月出天冠達馬(摩)大屯萬德等, 山歷歷可見. ○海外諸國如日本大小琉球女人安南交趾廣東福建暹羅浙江山東寧波開封松江登萊揚青蘇杭州等地, 雖不得相望接界羅列, 依 俙指點於杳茫之中, 壯道大觀, 無過於此. 異國商船常常往來泮中, 或入泊本島借水覓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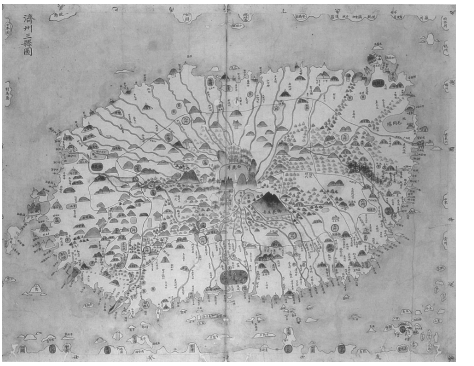
17 이상태(1996), 앞의 논문, 208-209쪽; 『濟州邑誌』(想白古915.149-J389), 先生案.

www.kci.go.kr

하였는데, 조선인들의 표착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외국 상선이 자주 오가며 제주에 정박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1627년 일본 나가사키 상관으로 향하던 벨테브레가 제주에 상륙한데 이어, 1653년 하멜 등이 표착하였던 사례와 같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상선이 오가며 제주에 표착한 사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지도에는 1706년 목사 송정규(宋廷奎)가 공마를 포구로 내릴 때 목장으로 삼기 위해 축조한 서산장(西山場)이 보인다.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분포한 오름에 불꽃 모양은 봉수를 표시하였고, 산림이 우거진 임수(林藪)를 자세히 묘사하였다. 진산(鎭山)인 한라산 백록담을 타원으로 처리하여 강조하였고, 국왕이 타는 명마의 산지로 유명한 어승생악(御乘生岳)을 비롯하여 산처럼 솟아있는 330여 개의 오름이 실감나게 묘사되었다. 하천은 구륵 쌍선으로 그리고 목장의 경계는 단선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각지에 분포하는 용천수와 군사기지인 방호소의 모습, 촌락과 포구, 과원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다. 지도는 목판본으로 보급되어 이후 제주지도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해동지도』 내의 「제주삼현도」는 두 종류가 있다. 그중 첫 번째 「제주삼현도」는 목판본 「탐라지도병서」의 내용과 구성을 반영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도5). 제주의 목장과 봉수, 과원, 오름과 백록담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흐르는 물길을 상세히 표시하였고, 전라도 남해안 군현뿐만 아니라 조선에 인접한 중국, 안남국, 유구국, 일본국 등의 이웃 국가의 지명을 지도 외곽의 형 둘레에 적어 실제 거리를 고려하지 않



도5-「제주삼현도」, 『해동지도』, 18세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www.kci.go.kr

고 24방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위치를 표기한 점이 특징이다. 지도에 표기된 내용은 제주도의 삼현을 적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라산 주변 일소(一所)부터 십소(十所)까지 표시되어 있는 곳은 1704년 새로 구획된 국마 목장이며[18], 산간 이북에 집중된 산장과 해안가에 여러 개의 마장(馬場)도 보인다. 그밖에도 '과(果)'라 표기한 과수원과 포구 등이 자세하다. 해안가의 전략적 요충지에 수많은 봉대와 봉수 등 해안 방어 시설도 보인다. 오름 중 가장 눈에 띄는 어승생악은 한라산 아래 위치한 기생화산으로 조선 정조 때 이 오름 밑에서 용마(龍馬)가 탄생하여 당시의 제주목사가 이를 왕에게 봉납하였는데, 왕이 타는 말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어승생'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지도에는 화북(禾北)을 '水北'으로 오기하였다.

제주 읍성 안에 제주목 관아와 객사 영주관(瀛洲館)을 비롯하여 1682년(숙종 8)에 사액 받은 제주 유일의 귤림서원(橘林書院)과 문묘도 자세히 표기되었다. 제주 읍성 왼쪽 조천관(朝天館)은 제주도에서 육지로 떠나는 배들이 출발하던 곳이다.[19] 읍성 위쪽으로는 탐라국의 신인(神人)으로 받들어지는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가 나왔다는 삼성혈(三姓穴)이 표시되었다. 읍성 우측 아래 벌랑포(伐浪浦) 위의 제단은 마조단(馬祖壇)으로, 대규모 목장이 세워지면서 말의 수호신인 방성(房星)에 제사하던 곳이다. 마조 제사는 조선의 국가 제례 체계에 소사(小祀)에 분류되었다.[20]

『해동지도』 내의 두 번째 「제주삼현도」는 제주 삼현의 읍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마장과 국마목장은 10개소로 정리되기 이전 백록담 자락 아래 수림으로 경계를 만들어 황자둔, 열자둔, 십자둔 목장 등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조천진을 비롯하여 명월소, 화북소, 모슬소, 애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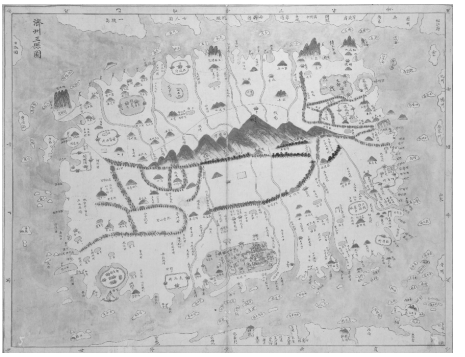
---

18 국둔 목장 1소부터 6소까지는 제주목, 7소와 8소는 대정현, 9소와 10소는 정의현에서 관할하였다. 『제주읍지』(想白古915.149-J389), 「목장」.

1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全羅道, 濟州牧.

20 『大典通編』 禮典, 祭禮, [祭祀日期].

www.kci.go.kr



도6-「제주삼현도」, 『해동지도』, 18세기, 지본채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 등 9곳의 방호소를 비교적 자세하게 표시하였다(도6). 제주의 방호소는 왜구가 배를 댈 수 있는 요해처로 보병과 마병이 수어(守禦)하는 곳이다.[21] 먼저 조천진은 제주성 동쪽에 위치하였고, 고을나의 후손 고후(高厚)와 고청(高淸)이 신라에 조회할 때 이곳에서 배를 출발하였기 때문에 유래한 이름이다.[22] 그 안에는 조천관과 연북정(戀北亭)이 있는데, 목사 이옥(李沃, 1641-1698)이 성안으로 옮겼고, 제주목사 성윤문(成允文)이 중수 때 쌍벽정(雙碧亭)의 편액을 연북정으로 고친 것이다. 화북진은 별도(別刀)라고도 하였고, 1678년 목사 최관(崔寬)이 설치하였다. 과거에는 수전소가 있었으나 18세기에는 전선을 없앴고, 바람을 기다릴 때 조천진을 거쳤으나, 18세기 후반에는 제주성에서 가까운 화북진을 거쳤다. 진 안에는 환풍정(喚風亭)과 영송정(迎送亭)이 있었다. 별방진은 제주성 동쪽에 위치하였고, 1510년 목사 장림(張琳)이 우도에서 가깝고, 적이 출몰하는 요충지로 간주하여 김녕방호소를 철수하여 이곳으로 이설하였다. 수산진도 제주성 동쪽에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의 타라치[塔剌赤, 1276-1287]가 수산평에서 소와 말, 낙타, 나귀 등을 방목하였던 곳으로 1706년 만호를 두었고, 1716년 조방장(助防將)을 두었다. 서귀진은 정의현성 서쪽에 있고, 1589년 목사 이옥이 바닷가에서 옮겨왔다. 정의현과 대정현 사이 이곳에만 진이 있어 1691년 백성들에게 주인 없는 밭을 나눠 분급하고 1711년 진 아래

21 『세종실록』 84권, 21년 윤2월 4일(임오).
22 허목, 『기언』 권48 속집, 四方 2, 「耽羅誌」.

www.kci.go.kr

폐목장의 밭은 쇄환전(刷還田)이라 하여 후손에게 세전하게 하였다. 모슬진은 대정현성 남쪽에 위치하였고, 1678년 목사 윤창형(尹昌亨)이 동해소를 철수하여 옮겨 세웠다. 차귀진은 대정현 서쪽에 있고, 1706년 만호를 두었고, 1716년 조방장을 두었다. 명월진은 제주성 서쪽에 위치하였다. 1510년 제주목사 장림이 목성(木城)을 쌓고, 1592년 제주목사 이경록(李慶祿)이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애월진도 제주성 서쪽에 위치하였고, 과거 목성은 삼별초가 관군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것이다. 1581년 목사 김태정이 석성으로 개축하였다.[23] 서귀소(西歸所)는 정의현 관할의 대표적 방어유적으로, 1590년 제주목사 이옥이 정방폭포가 있는 보목촌(甫木村) 가까이 옮겼고, 원래 자리에는 삼둔하장(三屯下場)이 자리 잡았다. 서귀소는 1695년 제주목사 이익태가 꼽은 탐라십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주목의 월로촌과 추로촌 사이에는 삼성에 제사지내던 삼성단(三姓壇)도 보인다. 삼성단은 한라산 북록에 1526년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이 모흥혈(毛興穴) 주위에 28척의 돌담을 쌓고 홍문을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다. 1698년 제주목사 유한명(柳漢明)이 삼성혈 옆에 묘우를 처음 건립하였고, 이후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계품(啓稟)하여 읍성 내에 묘우를 중건하였다. 이후 1785년 정조가 삼성묘에 사액하였다.[24] 제주목 관아 좌측에는 향교의 대성전과 강청(講廳), 명륜당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좌측에 제주목사 겸 호남방어사로 부임한 노봉 김정(金鋥, 1670-1737)이 1735년에 삼천서당(三泉書堂)을 세워 교육에 힘쓴 것을 기념하여 세운 흥학비(興學碑)가 있다.[25] 명륜당 우측의 둑소(纛所)는 군중(軍中)에 세워 군왕 및 지휘관의 군령권을 상징하는 의장물인 둑기(纛旗)를 보관하며 제를 지내던 둑신묘이

---

23 탐라 9진에 대해서는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역주(2010), 『남환박물』, 170-175쪽 참조.

24 『일성록』 정조 9년 2월 12일조

25 『제주읍지』(想白古915.149-J389), 「학교」; 「서원」.

www.kci.go.kr

다.[26] 1421년(세종 3)부터 둑제는 소사(小祀) 규례의 유교식 국가 의례로 정착되어 군기가 있는 군영에서 행하였고, 조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27]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에 대한 주기에 의하면, 18세기 당시 목장은 13처, 봉수 25처, 연대는 38처, 과원은 40처가 있었고 흑염소를 키우던 고권(羔圈)은 제주목과 대정현에 각각 1처씩 있었음을 주기에서 밝혔다. 또한 지도 제작 당시 "탐라의 두 지도는 모두 제주목의 인본(印本)으로 그 자세하고 소략한 것이 동일하지 않아 함께 두고 참고에 대비하였다[耽羅兩地圖, 皆是本邑印本, 而詳略不同, 幷存以備參考]."고 기록하였다. 또한 수로(水路)에 대한 주기에는 제주에서 해창(海倉)까지 거리와 화북소(禾北所)에서 보길도의 거리를 설명하면서 '新地圖'와 '舊地圖'를 언급하였다.[28] 해남 보길도는 제주도의 공물을 육지로 실어 나르는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에서 거리를 명확히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지형과 하천 유로로 비교하면, 주기에서 구지도는 목판본 「탐라도」로 두 번째 「제주삼현도」의 저본이 되었고, 신지도는 1709년 제작된 목판본 「탐라지도병서」로 첫 번째 「제주삼현도」의 저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29]

『해동지도』 중 두 번째 「제주삼현도」의 내용과 유형은 이후 『여지도』,

---

26 둑기는 큰 흑우의 꼬리로 만들었는데, 군법의 神 蚩尤의 머리를 상징하였다. 둑기는 군대가 출정할 때뿐만 아니라 국왕의 행차에도 통수권자인 국왕을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되었다. 둑제는 조선에서 武備의 소홀을 경계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염원하는 국가제사로 문신들의 석전제에 비견되는 무관들의 제사였다. 심승구, 「조선시대 둑제의 변천과 의례」, 『공연문화연구』 28(2014), 155-201쪽.

27 『세종실록』 12권, 3년 7월 19일(기묘).

28 "水路, 舊地圖, 則自濟州距海倉, 九百餘里. 新地圖, 則自禾北距甫吉島, 二百十里, 而水路不得尺量, 難未得其詳槩自濟州距海倉也. 甫吉島幾過半, 則不下四百餘里矣."

29 김기혁(2018), 앞의 논문, 64, 68-70쪽; 이 논문에서는 제주지도의 하천 유로를 조사하여 「탐라도」계열, 「탐라지도병서」계열, 「탐라지도」계열 등으로 나누어 지도 제작에서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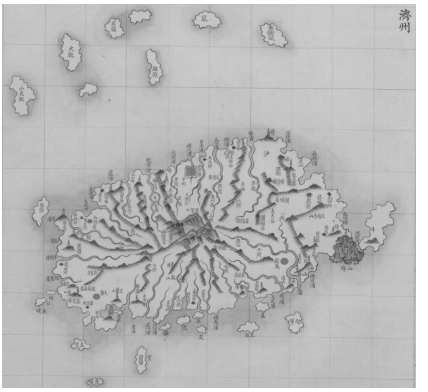
『지승』, 『광여도』, 『각읍지도』, 『호남전도』 등 전국 단위 군현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30] 먼저 산수화풍으로 묘사된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제주목을 비롯한 3곳의 읍치, 9처의 방호소, 연대 등을 강조한 점과 임수로 구분된 목장, 진해당(鎭海堂)이 있는 성산(城山)을 마치 수직 암산처럼 묘사한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중 『광여도』의 제주목 지도에는 다른 지도와 달리 조천관과 제주목 읍치 사이에 위치한 화북소에 '조선사신유관(朝鮮使臣留館)'이라 기록하여 조정의 명으로 파견된 관료들이 머무는 곳임을 밝혀 주목된다. 또한 『여지도』의 구서귀소(舊西歸所)는 마치 바다에 있는 반달형 지형처럼 묘사하였는데, 이는 구서귀소의 담장을 묘사한 것을 잘못 옮겨 그린 것으로 보인다.

1694년 이익태 목사가 주도하여 제작한 것을 후대 모사한 것으로 알려진 『탐라십경도』 중 「탐라도총」은 지형과 산간 수림 묘사 등을 비교해 볼 때, 「한라장촉」과 유사한 지도 유형이다(도7). 지도 위의 주기에는 제주 진산(鎭山) 한라산이 북면하여 삼읍의 양현(兩縣)을 다스려 정의현은 산의 동남 모퉁이에 있고, 대정현은 산의 서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방호소 9소, 봉수 25처, 포구 85처, 연대 39처, 과원 40처, 고원(羔園) 3소라 기록하여 『해동지도』의 제주 주기와 같이 18세기 중반 이후 상황을 반영하

도7-「탐라도총」, 『탐라십경도』, 18세기 후반, 국립민속박물관

30 정은주, 「조선후기 繪畵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역사지리』 23-3(2011), 119-140쪽.

www.kci.go.kr



도8-「제주」, 『지도』, 18세기 후반, 지본채색, 장서각

고 있다.

18세기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도』 중 제주 부분은 전라도 군현 중에 수록되었다(도8). 다른 지도와 달리 20리 방안도법에 의해 제작되어 제주 지형과 거리가 비교적 사실에 가깝다. 산맥과 하천을 중시하여 그렸기 때문에 다른 지도에 그려져 있는 개별 오름을 산맥처럼 처리하고 오름의 각 명칭만 간단히 기록하였다. 또한 지도의 방향은 육지를 바라보는 구도로 그려졌다. 오름은 연맥으로 묘사되고, 위양포의 성산은 독립적으로 그리지 않았으며, 한라산은 백록담을 중심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수로를 상세히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도 유형은 1834년 매 눈금을 각 10리로 축적하여 그린 김정호의 『청구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김정호는 주기에서 "제주의 별호는 耽羅, 毛羅, 東溢州이다. 태종 임오(1402)년 좌우군(左右郡)의 지관(知官)을 설치하고 세종 을축(1445)년에 副鎭撫로 개상(改上)하였으며, 세조 병술(1466)년에 절도사를 설치하였고, 예종 기축(1469)년 목사로 고쳤다."고 하였다. 단독 제주지도는 아니지만, 19세기 중반 「해좌전도」의 제주 주기에는 "신라 법흥왕 때 신라에 조공하여 국호를 탐라로 받은 후 백제에 굴복하였고, 백제의 멸망 후 신라에 복속되었다. 고려 태조 때 내조(來朝)하였고, 숙종 때 탐라군으로 강등되었으며, 의종 때 현으로 강등된 후 원나라에 속하였다가 다시 고려로 돌아와 공민왕 때 제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최영을 보내 평정하였다. 조선 태종연간 정의, 대정 2현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다른

www.kci.go.kr

지도에 비해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1841년 윤3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조(李源祚, 1792-1871)는 목판본 탐라지도를 고경욱이라는 제주출신의 화원을 통해 축소하여 모사하게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서문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 탐라지도는 옛날 판각이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닳아 이지러지고 크기도 커서 병풍이나 족자로 만들기 불편하였다. 들으니 제주사람 고경욱(高敬旭)이란 자가 영주십경(瀛洲十景)을 잘 그린다고 하여 옛날 목판 지도를 모사하게 하였다. 규격은 옛 지도에 비해 3분의 1로 줄이고, 방리와 촌명, 언덕, 시내 중 이름 없는 것은 생략하여 번잡함을 덜어 간단하게 하였다. 먹을 채색으로 바꿔 보기에 좋고 편리하였다. 족자로 장황하여 벽에 걸어두니 운해가 널리 펼쳐지고, 한라산이 우뚝 솟아 망루와 성곽의 포치, 인물과 여정의 주밀함, 포진의 방수하는 곳, 월삭으로 진헌하는 수, 해외 여러 나라의 방향과 원근이 한눈에 들어왔다. 와유할 자료라 할 만하고,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3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사 이원조가 제주출신 고경욱에게 기존 목판본 탐라지도보다 1/3 크기로 줄여 모사하게 하였고, 그 제작 목적은 감상하거나 지역의 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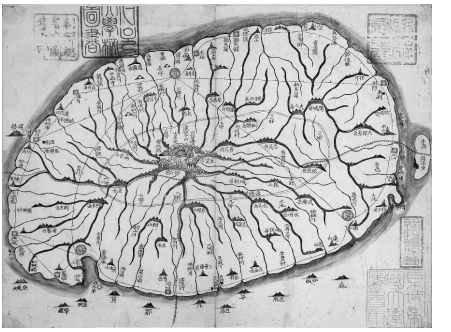
이후 『동여도』와 목판본으로 제작한 1861년 『대동여지도』의 제주 묘사에서는 산은 목판본의 특성에 맞게 산악투시도법으로 표시하였고, 도로의 표시가 보다 상세해진 것이 특징이다(도9). 한라산 백록담 인근의 지명

---

31 李源祚, 『凝窩集』卷15, 後敍, 「耽羅地圖小識」. "耽羅地圖, 舊有板刻, 而年久刓缺, 且體樣大, 不便於屛簇. 聞州人高生敬旭者, 能畵瀛洲十景, 仍舊刻模地圖, 間架比舊減三分之一, 坊里村名及培塿溪澗無名者畧之, 刪繁就簡, 換墨以彩, 取悅眼而便覽, 粧爲簇, 掛之壁上. 雲海浩渺, 瀛岳挺峙, 樓櫓城郭之布置, 人物閭井之周匝, 浦津防守之所, 月朔進獻之數, 外洋諸國之方向遠近, 一寓目而盡得之, 斯可以資臥遊, 斯可以助出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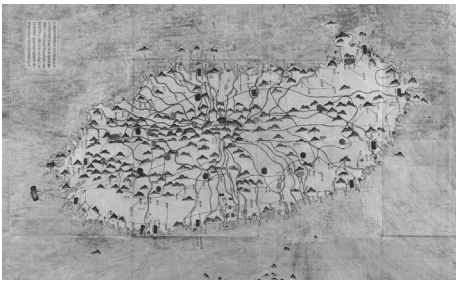
www.kci.go.kr

중에는 '수행굴(修行窟)'이라는 지명이 새롭게 나타난다. 1702년 등정했던 이형상은 『남환박물』에서 "위에 수행동이 있다. 동에는 칠성대가 있어 좌선암이라 부른다. 이는 옛 스님이 말한 팔정옛터인데, 이를 존자암이라고 부른다. […] 존자가 암자를 지은 것은 고(高)·양(梁)·부(夫) 삼성(三姓)이 처음 일어난 때 비로소 이루어졌고, 삼읍이 나누어질 때까지 오래도록 이어졌다. 지금은 스님이 없고 헐린 온돌만 남아 있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존자암은 삼성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하는데, 그 위치는 처음 영곡의 동남쪽 중간에 있었다가 영곡 서쪽 10리 밖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고, 원래 존자암 주변에는 칠성대와 좌선암이 있었으며, 옛날 고승이 도를 닦았던 석굴이 있는데 이곳을 수행동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이형상 당시까지도 부서진 온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9-「제주」, 『대동여지도』, 1861년, 목판채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주삼읍전도」는 한라산이 있는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한 『해동지도』의 첫 번째 「제주삼현도」와 유사한 지형으로 제작되어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도10). 지도의 하단에는 전라도 남해안의 고을과 포구, 도서를 배치하였고, 상단에는 중국 강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명을 기록하였다. 지명은 대정현과 정의현이 아닌 '군(郡)'으로 표기되



도10-「제주삼읍전도」, 1872년, 지본채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www.kci.go.kr

었는데, 이는 1864년(고종 1)에 바다 방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의현과 대정현의 수령 자리를 변경관직[邊地窠]으로 인정하여 군으로 승격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32] 각 면을 중심으로 점을 찍어 소속 동리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은 다른 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좌측 상단에 적힌 주기에는 정의 4면 동리 42진, 대정 3면 동리 25진, 제주 4면 동리 83진 등 제주 삼읍의 면동리의 수, 진보와 봉수, 연대, 마우장(馬牛場), 산장의 수를 기록하고 산마(山馬) 감목관의 관리 아래 각 포에 진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조천, 화북, 애월 3진(鎭)에만 선박을 두고 다른 포구 앞에는 출입을 금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해안의 포구는 물론 연대와 봉수 등 관방시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또한 마라도와 가파도를 비롯한 주변 섬들과 본도의 수로(水路)를 리수로 표시하였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다까지 연결되는 하천이 파랑색 구륵선으로 상세히 묘사되었고, 도로는 붉은색이 아닌 검정 선으로 구분하였다. 해안의 진 9개소와 중산간 지대 국둔(國屯) 목마장 10소를 각각 붉은색과 파랑색 바탕 속에 기록하였다. 오름이나 목장 주변에는 생수, 지(池) 등을 표시하여 용수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는 목장에 형성된 습지 또는 인공 못으로 목자와 우마에게 음용수를 제공하였다. 하예리의 중문원(仲文院), 3소장 위의 제천원(濟泉院), 발악(鉢岳)의 이왕원(利往院)과 같이 행려의 편의를 위한 역원도 표시되었다. 읍치의 남쪽에는 삼성의 탄생 설화가 남아 있는 삼성혈의 모습과 그 남쪽 삼의양악(三義陽岳)에는 산천단(山川壇)도 표시되어 있다. 산천단은 한라산의 산신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라산

32 1864년에 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가 1880년(고종 17)에 제주목 관할에서 벗어나면서 폐단이 발생하자 다시 현으로 되돌렸다. 이후 1895년에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시행되면서 현이 폐지되었다. 『승정원일기』 제2680책, 고종 1년 8월 30일(임술); 제2871책, 고종 17년 1월 27일(을미); 『고종실록』 33권, 32년 5월 26일(병신).

www.kci.go.kr

의 산신제는 나주 금성산에 의거하여 봄·가을에 제사하였다.[33] 『탐라기년(耽羅紀年)』에 의하면, 1470년 이약동(李約東, 1416-1493) 목사가 한라산신제를 해마다 백록담에서 봉행하면서 추위로 사람들이 희생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단을 백록담에서 산천단으로 옮겨 봉행하게 되었다.[34] 1702년 이형상이 한라산만 국가 명산대천의 사전(祀典)에 누락된 것에 대해 치계하여 1703년(숙종 29) 치악산과 계룡산 제례의 축문식에 따라 산신제를 올렸다.[35] 이후 한라산 산신제는 기근이나 역모가 발생하였을 때 국왕이 어사를 파견하여 지냈으며 1908년까지 지속되었다.[36]

Ⅲ. 제주 공마 목장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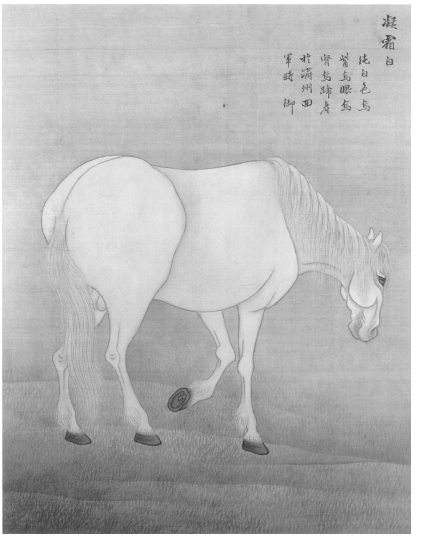
제주는 맹수가 없고, 산림과 넓은 들, 수초가 풍부하여 말을 기르기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었다.[37] 『고려사』에 의하면, 1073년(문종 27) 11월 팔관회 때 탐라에서 말을 진상하였으며[38], 1277년(충렬왕 3)에 원이 탐라에 목마장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제주도에서 목마(牧馬)는 삼별초의 난 이후 1276년 원나라에서 보낸 목마 160필을 방목하면서 비롯되었다.[39] 1277년에는 아막(阿幕)을 설치하여 소, 낙타, 나귀, 양 등을

33 『태종실록』 35권, 18년 4월 11일(신묘).
34 1997년 제주시 아라동 곰솔 숲의 공터에서 이약동이 건립한 漢拏山神古禪碑가 발굴되어 산천단 이동 경위가 확인되었다.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산천단 제사 터.
35 『숙종실록』 권38, 29년 7월 29일(계유).
36 金錫翼, 「罷山川州社諸公祀祭享」, 『心齋集』(한금순,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과 제주불교, 『대각사상』 29(2018), 281쪽 재인용).
37 『예종실록』 3권, 1년 2월 29일(갑인).
38 『고려사』 卷9, 世家 卷9, 문종 27년 11월 辛亥.
39 『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2년 8월조.

www.kci.go.kr

본격적으로 사육하였다. 원이 제주도에 목장을 설치한 이유는 이곳이 남송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의 요충지였고, 일본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장소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40] 1284년 원나라 총관부(摠管府)가 없어지고 탐라군민안무사부(耽羅軍民安撫使府)를 두면서 1288년(충렬왕 14) 제주인들이 기른 말을 탐라마(耽羅馬)라고 하였다.[41] 이후 1294년 비로소 제주가 고려에 예속되면서 1295년 탐라를 '제주(濟州)'로 고쳤다.[42]

제주 말은 체구가 작고 강건한 체질에 몸길이가 긴 것이 특징으로, 과하마(果下馬), 조랑말, 토마(土馬) 등으로 불렸다. 태조 이성계가 타던 여덟 마리의 준마 횡운골(橫雲鶻), 유린청(游麟靑), 추풍오(追風烏), 발전자(發電赭), 용등자(龍騰紫), 응상백(凝霜白), 사자황(獅子黃), 현표(玄豹) 중 응상백이 바로 제주산 말이다(도11). 응상백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때 탔던 말로 순백색의 몸에 검은 눈과 발굽이 검은 것이 특징이다.



도11-「응상백」, 『팔준도』, 1703년, 국립중앙박물관

제주 공마는 1408년(태종 8) 공부(貢賦)로 정해져 제주의 민호를 가족 수로 나눠 대호(大戶)는 대마 1필, 중호(中戶)는 중마 1필, 소호

40 송성대·강만익(2001), 앞의 논문, 144쪽.

41 李元鎭, 『耽羅志』, 「牧場」; 李源祚, 『耽羅誌草本』, 「濟州牧養」.

42 1295년 이후에도 草賊의 반란과 원나라 牧胡가 발호하였으나, 1375년 8월 공민왕이 도통사 최영을 보내 토벌하여 다시 관리를 두었다. 『고려사』 卷57, 志 卷11, 地理2, 全羅道, 「耽羅縣」.

www.kci.go.kr

(小戶)는 5호가 합하여 중마 1필을 바치게 하였다.[43] 1430년 한라산의 산록 사면에 목장을 개축하면서 민호 344호를 이주시켰다.[44] 이러한 조치는 1418년(태종 18) 이래 사람들이 평지에 경작을 시작하면서 수초가 부족하게 되자 제주 안무사 장우량(張友良)이 평지 방목의 폐단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45]

조선전기 관영목장은 1445년 전국에서 번식한 마필이 22,406필로, 그중 제주에서 기르던 목마는 9,792필이었다.[46] 당시 제주의 관영목장은 제주목에 6개소, 정의현에 3개소, 대정현에 1개소가 분포하였다.

17세기 중반 목장은 10소장에서 11소장을 설치하고 산하에 자목장(字牧場)을 두었다. 우마가 태어나면 목자는 나이, 모색(毛色), 관리자를 확인하고 마적 5통을 작성하여 감목관, 목사, 전라감사, 사복시, 병조에 각각 보내고 군둔(群屯)을 구별하는 낙인(烙印)을 하였다. 낙인은 천자문의 순서로 제주목이 38자, 정의현이 17자, 대정현이 3자를 사용하였다.

1653년(효종 4)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제주목의 목장은 7개소 6,450필이 목양되었고 국가 제향에 쓰는 흑우 20두를 공납하였다. 정의현은 3개소 2,383필이 목양되었고, 대정현은 1개소 2,552필의 말이 있었다.[47] 따라서 당시 제주 삼읍의 목장 총 11개소에서 11,385필이 목양되었다.

1678년 『목장지도』 제36면과 1680년 이후 제작된 『정색도』 제2면 제주의 경우는 통계표의 윗부분에 목장 현황을 나열하였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목장 그림 대신 전국 목장의 통계를 도별로 구분하여 목자와 마필의 수를 적고 이후 군현 소재 목장별 폐장(廢場), 말의 유무, 설둔(設屯) 상황을 일목요

---

43 『태종실록』 16권, 8년 12월 25일(무술).
44 『세종실록』 47권, 12년 2월 9일(경신).
45 『세종실록』 64권, 16년 6월 30일(을해).
46 『세종실록』 권108, 27년 5월 28일(신축).
47 이원진 편, 『탐라지』(『역주탐라지』, 「목양」(푸른역사, 2002), 161, 240, 260쪽.

www.kci.go.kr

연하게 기록하였다. 『목장지도』의 우도장과 별목장을 제외한 제주 삼읍의 말은 9,806필, 『정색도』에는 10,100필로 두 자료를 비교할 때 목장 총수와 목자 수는 일치하지만, 제주에서는 말 294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48]

1685년 김수흥(金壽興, 1616-1690)이 올린 사복마정에 대한 변통계(變通啓)에 의하면, 1636년 마적에서 제주의 말은 9,090필이고 전국 목장의 말은 16,590필이었고, 1684년 제주말은 11,540필로 증가하였고, 전국의 목장 말은 10,720필로 감소되었다.[49]

조선후기 관영목장은 조선전기에 비해 목장 분포가 확대되어 중산간지대 십소장과 산간지대의 산마장, 우장(牛場)이던 해안지대 우목장(牛牧場)과 부속도서의 가파도 별목장이 있었다. 이중 산마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목장을 제외한 목장으로 산장(山場), 산둔장(山屯場), 산목(山牧) 등으로 불렸다.

조선 전기 제주 목장의 조직은 감목관 외에도 목장 1소에 마감(馬監), 군두(群頭), 군부(群副), 목자(牧子), 보(保) 등으로 구성되었다. 암말(雌馬) 100필, 수말(雄馬) 15필을 1군(群)으로 삼아 군두 1인, 군부 2명, 목자 4명이 한 조를 이뤄 운영하였다.[50]

국마는 매 월말 감목관이 순행하면서 점마(點馬)하여 마필 수를 상사에 보고하고, 군부 및 군두의 근태를 평가하여 연 2회 이상 보고하여 진퇴를 결정하였다. 병조에서는 매년 초에 마적(馬籍)을 점검하여 마필 유실이 많은 자와 3년간 통산하여 번식시킨 수가 연 평균 30필 미만인 감목관을 파면하였다.[51] 산둔의 감목관의 경우, 사둔(私屯)에서 말을 대규모로 목양한

---

48 정은주, 「17세기 《牧場地圖》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1-2(2009), 49-77쪽.

49 『退憂堂集』卷7, 啓, 「司僕寺馬政變通啓(乙丑)」.

50 『經國大典』, 兵典, 「廄牧」.

51 『經國大典』, 兵典, 「廄牧」.

www.kci.go.kr

김만일(金萬鎰, 1550-1632)이 임진왜란 때 500필을 전투마로 내놓은 것을 계기로, 전쟁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말 1만 필을 진상하여 공로를 인정받아[52] 그의 후손들이 선조 연간부터 대대로 산둔 감목관으로 세습을 허락받았으나 자손 중에 목졸(牧卒)을 가혹하게 부린 폐단으로 숙종연간에는 세습을 폐지하고 정의현감이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였다.[53]

17세기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에 의하면, 제주 자목장 한 둔의 말은 1백여 필 이상으로 목자(牧子)는 2-3인 정도였다. 또한 말이 겨울 혹한에 죽으면 목자는 가죽을 벗겨 납부하였고, 관에서는 마적에 기재된 마색(馬色)과 대조하여 털색이 서로 부합되어야만 이를 수용하였다. 마적과 차이가 있거나 모피에 손상 흔적이 있으면 목자에게 변상을 시켰는데 징마(徵馬)는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목자의 친족들에게 분징(分徵)하기도 하였다.[54] 흉작으로 쓰러지거나 죽은 국둔마와 목자의 수가 증가하면 그를 대신한 징수는 더욱 가혹해졌다.[55]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 관내를 순력하면서 파악한 국마는 64개 둔의 목장에 9,372필로 17세기 말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인다.[56] 숙종연간 목장의 개조를 허용하면서 더욱 감소하였고, 화포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전래 및 농경지 개간에 영향을 받아 목장이 폐장되거나 축소되었기 때문이다.[57]

---

52 김만일은 1620년 특별히 부총관에 제수되었고, 1628년 종1품 숭정대부를 제수받았다. 『광해군일기』 53권, 12년 8월 15일(경신).

53 『숙종실록』 64권, 45년 10월 17일(병진). 이후 1847년부터 1884년까지 김만일 집안에서 산둔감목관직에 제수된 인물은 총 11명으로 헌마에 대한 특혜를 누렸다. 김경옥(2001), 앞의 논문, 68-69쪽.

54 원창애, 「조선시대 제주도 馬政에 대한 소고」, 『제주도사연구』 4(1995), 7-8쪽.

55 『승정원일기』 제362책, 숙종 20년 11월 7일(신미).

56 이형상, 『탐라순력도』, 「서문」; 이형상, 『남환박물』, 「誌馬牛」.

57 송성대·강만익(2001), 앞의 논문, 148쪽.

www.kci.go.kr

『탐라지』에 의하면, 1704년(숙종 30) 목사 송정규가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목장관리가 부실하여 마필의 사육이 불량하거나 규모가 작은 자목장을 폐쇄하거나 정비하여 원래 20소 60둔이던 것을 10소장으로 통폐합하였다.[58]

『탐라순력도』에 의하면, 이형상이 1702년 11월 점고하였을 때 제주 삼읍의 백성은 9,552호, 남녀 43,515명이고, 밭은 3,640결이었다. 세부적으로 정의현에는 성장 2명, 치총(雉摠) 4명, 성정군 664명, 목자와 보인 190명이 있었고, 민호 1,436호, 전답 140결, 말 1,178필, 흑우 228수, 창고의 곡식은 4,250여석이었다. 대정현에는 성장 2명, 치총 4명, 성정군 224명, 목자와 보인은 123명이었고, 인민 797호, 전답 149결, 말 847필, 흑우 228수, 창곡은 1,950여석이었다. 제주목에는 성장 4명, 치총 8명, 성정군이 1,263명이 있었고, 인민 7,319호, 전답 3,357결, 창곡은 30,040여석이었다.

제주 내 각 지역에서 공마를 점고하는 것은 중요한 행사였다. 공마는 비변사에서 제주어사(濟州御史)를 파견하여 관리하였고, 해당지역 목사와 감목관 그리고 현감 등은 수시로 구마(驅馬)와 점마(點馬)를 통해 국마를 관리하였다.[59] 구마를 위해 우마를 취합하는 원형 목책인 환장(圜場)과 취합한 우마를 한 마리씩 좁은 목책으로 통과시키는 사장(蛇場)이 필요하였다.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말과 관련한 행사 기록화 중 「산장구마(山場驅馬)」는 1702년 10월 15일 제주판관, 감목관, 정의현감이 참여하여 성판악 아래 산장에서 말을 몰아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마필의 수를 확인하는 모습이다. 사장과 환장의 목책을 만든 결책군(結柵軍)은 2,602명, 말을 모는 구마군(驅馬軍)은 3,720명, 말을 관리하는 목자와 보인(保人) 214명, 말 2,375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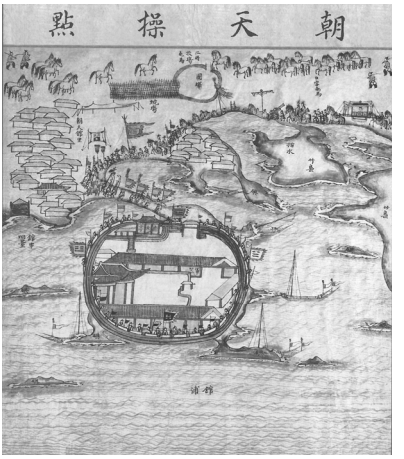
58 이원진, 『탐라지초본』; 1744년(영조 20) 목사 윤식(尹植)이 다시 계(啓)를 올려 가축(加築)하였으나, 국둔 마장은 1899년(광무 3)에 결국 폐지되었다. 원창애(1995), 앞의 논문, 49-50쪽.

59 김경옥(2001), 앞의 논문, 72-73쪽.

www.kci.go.kr

구마한 장면이다.[60] 미원장(尾圓場)에 말을 먼저 몰아넣고, 사장을 통해 점검한 후 두원장(頭圓場)에서 취합하였다. 「우도점마(牛島點馬)」는 7월 13일 정의현감이 목자와 보인 23명, 성산 서편의 우도 목장 내에 있는 말 262필을 점고한 내용이다. 「조천조점」은 10월 20일 조천관의 연북정(燕北亭)을 중심으로 조방장 김상중과 휘하의 성정군(城丁軍) 423명, 군기집물을 점검하였고, 제2소 목장과 일자목장(日字牧場)의 둔마 목자와 보인 87명, 말 505필을 점검하는 그림이다(도12).

제주는 연례(年例), 식년(式年), 부정기적 공마를 하였고, 병조에서 우마적(牛馬籍)에 기초해 징발할 말을 선정하여 사복시에 하달하면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제주목사에게 전달되었다. 각 목장에서 징발된 말은 제주목 관덕정 앞에서 우마적과 대조 후 육지로 호송하기 위해서는 조천포, 별도포 등에서 출발하여 보길도, 영암, 강진, 완도, 해남 등지로 이동하였고, 공선 1척



도12-「조천조점」,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도13-「공마봉진」,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60 이형상, 1702년, 『탐라순력도』, 「산장구마」.

www.kci.go.kr

당 20-30여 필의 말을 수송하였다.[61] 제주의 공선은 봄부터 여름까지 매년 3척으로 내왕하였고, 제주에서 한성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공선 1척마다 영선천호(領船千戶) 1인, 압령천호(押領千戶) 1인, 두목 1인, 사관(射官) 4인, 격군(格軍)은 대선(大船) 43명, 중선(中船) 37명, 소선(小船) 34명이 배정되었다.[62]

「공마봉진(貢馬封進)」은 1702년 6월 7일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하여 제주목사가 이를 확인하는 장면이다(도13). 이때는 대정현감 최동제(崔東濟)가 공마봉진의 책임을 수행하는 차사원이었다. 관아 내에서 공마를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 점고하였고, 목자들은 공마 2마리씩 데리고 점고에 대기하고 있다.

공마는 삼명일(三名日)에 헌납하는 탄생마(誕生馬), 동지마(冬至馬), 정조마(正朝馬) 각 20필, 매년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연례마(年例馬) 8필, 연말에 상납하는 세공마(歲貢馬) 200필, 임금의 어승마 20필,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비마(差備馬) 80필, 식년(式年)에는 산둔마 2백 필을 두 번으로 나누어 더 올려 보냈다.[63] 흉변을 대응하기 위한 흉구마(凶咎馬) 32필, 물건을 실어 나르는 노태마(駑駘馬) 33필 등으로 제주의 국마 433필이 내수사(內需司)와 사복시에 진상되었고, 제수용 흑우 20두가 추가되었다.[64]

공마의 봉진은 유사 시에 감해주기도 하였는데, 1776년 5월에는 공마를 싣고 바다를 건너다가 100여필이 침몰하자 이에 1777년 공마의 봉진 수를 절반으로 감하였다.[65] 1792년(정조 21)에는 임금이 타는 어승마로 선정된

---

61 국립제주박물관 편, 『제주의 역사와 문화』(통천문화사, 2001), 147쪽.

62 『세종실록』 29권, 7년 7월 15일(임오).

63 『홍재전서』 13권, 序引 6, 翼靖公奏藁軍旅類叙(庚申), 馬政引 附郵驛; 김영옥(2001), 앞의 논문, 268쪽.

64 이형상, 1702년, 『탐라순력도』, 「공마봉진」.

65 『정조실록』 1권, 즉위년 5월 20일(경인).

www.kci.go.kr

것에 대한 논상으로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가 내구마(內廏馬) 1필을 하사받았다.[66]

1878년 8월 사복시의 제주 세공마를 기록한 『제주출래후운세공마(濟州出來後運歲貢馬)』에 의하면[67], 세공마는 총 200필로 털빛에 따라 붉고 갈기가 검은 유마(騮馬) 72필, 흰빛과 붉은 색을 띤 적다마(赤多馬) 65필과 적흑색의 오류웅마(烏騮雄馬) 25필, 검푸른 가라웅마(加羅雄馬) 25필, 등에 검은 털이 있는 황색의 고라웅마(古羅雄馬) 9필, 황백색의 공골웅마(公骨雄馬) 3필, 연설하웅마(烟雪呵雄馬) 1필 등이었다. 그 외에 삼명일에 20필씩 60필을 진상하였고, 연례 진상마가 8두였다. 또한 제주목에는 목사, 판관, 현감 등의 체임에 10필, 노태마 10필, 흉구마 10필이 비정기적으로 공헌되었다. 제향에 쓰는 흑우는 40두를 바쳤다. 식년 공마는 어승마 10필, 갑마(甲馬) 200필, 차비마(差備馬) 40필을 바쳤고, 제주 지방관의 경우 8개월 이상 재임한 목사의 체임마는 3필, 판관과 현감의 체임마는 2필을 제공하였다.[68]

19세기 중반 이래 부속도서의 목장인 우도장과 가파도 별둔장에서 개간이 허용되었고, 이후 중산간의 목장 내에서도 화전이 허용되면서 개간이 이루어졌다. 1894년부터는 관영목장을 유지시켰던 감목관제와 공마제도가 폐지되어 공마수송이 종료되고, 1897년부터는 공마를 금납(金納)으로 대신함으로써 관영목장은 결국 폐지되기에 이른다.[69]

---

66 『정조실록』 47권, 21년 8월 2일(무술).
67 「濟州出來後運歲貢馬」(奎26010).
68 『제주읍지』, 「진공」(정조연간).
69 『제주읍지』, 「제주목 목장」(고종연간).

www.kci.go.kr

Ⅳ. 제주 지방관의 순력과 명승

1. 지방관 순력의 주요 행사

1702년 3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은 그해 10월 그믐에 출발하여 한 달 만에 순력에서 돌아와 지방의 화공 김남길(金南吉)에게 명하여 순력의 내용을 40폭으로 그리게 하여 1첩으로 장황하고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라고 이름하였음을 아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 봄가을마다 절제사가 친히 방어의 형지와 군민 풍속을 살피니 이를 순력이라 하였다. 나는 구례에 따르지 않고, 10월 그믐날 출발하여 한 달을 순력하고 돌아왔다. 당시 이태현, 정의현감 박상하, 대정현감 최동제, 감목관 김진혁이 모두 지역별로 배행하여 도착하니 출발하며 이르길, "이번 행차는 기록할 만하다." 하였다. 도민이 임금의 은혜에 감동하여 건포에서 배례하기에 이르렀고, 음사(淫祠)를 모두 태워 지금은 무격(巫覡)에 종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한가한 날에 화공 김남길에게 40도(圖)를 그리게 하고, 오로(吳老)의 필(筆)을 빌려 1첩으로 장황하게 하여 '耽羅巡歷圖'라 하였다. 1703년 5월 13일, 제주 감영의 와선각(臥仙閣)에서 짓다.[70]

위 서문에서 '吳老'를 1701년 무고(巫蠱)의 옥사에 연루되어 대정현에 안치된 오시복(吳始復, 1637-1713)으로 추정하고 화첩을 장황한 이로 간주

---

70 李衡祥, 『瓶窩集』卷14, 「耽羅巡歷圖序」 부분. "每當春秋, 節制使親審防禦形止及軍民風俗, 謂之巡歷. 余亦遵舊例, 發行於十月晦日, 閱一朔乃還, 時半刺李泰顯, 旌義縣監朴尙夏, 大靜縣監崔東濟, 監牧官金振爀, 皆以地方陪到, 乃作而曰, 此行可紀. 且也島民感君恩, 至有巾浦之拜, 而淫祠皆火之, 今無業巫覡者, 是尤不可以無言也. 卽於暇日, 使畫工金南吉, 爲四十圖, 且要吳老筆, 粧縞爲一帖, 謂之耽羅巡歷圖. 時癸未竹醉日, 題于濟營之臥仙閣."

www.kci.go.kr

하였다. 그러나 이조참판, 한성판윤 등을 역임한 오시복은 제주목사 이형상과 친분이 있었고, 글씨도 잘 써 장황이 아닌 필력으로 『탐라순력도』의 제목과 그림 아래 주기를 쓰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71] 또한 순력의 시점이 1702년 10월에서 11월에 있었으므로, 그림이 완성되어 장황된 시점은 1703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행사기록화는 순력의 목표인 방어를 위한 군사시설과 형지를 파악하고, 제주인의 풍속을 각 지방관들과 함께 살피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목장이나 말의 점고 외에도 제주목사의 순력 동안 중요한 행사는 감귤의 봉진, 사냥, 군사훈련과 시사(試射), 승보시(陞補試),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베푼 양로연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귤 봉진과 관련한 행사도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제주·정의·대정읍 등 삼읍에서 귤나무를 재배하여 매년 12월 그 수량을 보고하게 하였다. 1526년(중종 21) 목사 이수동에 의해 과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고, 목사 이형상이 재임 시에 과원 수는 42곳으로 증가하였다.[72] 제주에서 한 해의 첫 귤[黃柑]을 진상하면 종묘에 올린 후 1536년(중종 31)부터는 특지(特旨)로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에게 하사하고 이때 귤이 없으면 유자나 소금 간을 하지 않고 말린 황대구(黃大口)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제(御題)로 감제(柑製) 또는 황감제(黃柑製)를 거행하였는데, 합격하면 문과 전시(殿試)나 회시에 직부(直赴)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73]

『탐라순력도』 서문에 의하면, 1702년 제주의 42과원 내에 감자(柑子, 홍귤나무) 229그루, 귤 2,978그루, 유자 3,778그루, 치자 326그루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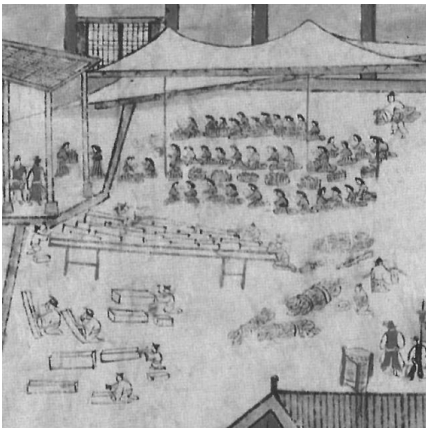
---

71 이보라(2007), 앞의 논문, 81-82쪽; 윤민용(2011), 앞의 논문, 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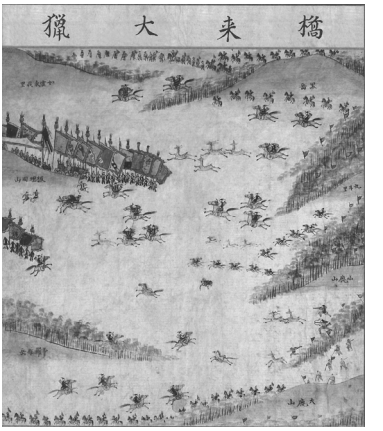
72 국립제주박물관 편(2001), 앞의 책, 147-150쪽.

73 『중종실록』 권81, 31년 1월 10일(병인); 『續大典』, 禮典, 諸科; 『大典通編』 권3, 禮典, 諸科, 黃柑製; 『六典條例』 권6, 禮典, 成均館, 科擧.

www.kci.go.kr



도14-「감귤봉진」부분,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도15-「교래대렵」,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감귤봉진(柑橘封進)」은 망원루 앞에서 제주 특산물인 감귤과 한약재로 사용되는 귤껍질을 봉진하는 모습으로, 9월부터 2월까지 종묘 천신용(薦新用) 귤의 2차 진상분은 21운(運)이었다(도14). 진상한 귤의 종류는 당금귤(唐金橘) 678개, 감자(柑子) 25,842개, 금귤(金橘) 900개, 유감(乳柑) 2,644개, 동정귤(洞庭橘) 2,804개, 산귤(山橘) 828개, 청귤(青橘) 876개, 유자(柚子) 1,460개, 당유자(唐柚子) 4,010개, 치자(梔子) 112근, 진피(陳皮) 48근, 청피(青皮) 30근 등이었다. 「귤림풍악」은 제주읍성 내의 망경루 후원 귤림에서 풍악을 즐기는 모습으로, 당시 제주읍성에는 과원 5개소와 별과원 등 6개소가 있었다. 과원의 경계는 대나무를 심어 울타리 삼았다. 해당 주기에 따르면 1702년 제주 3읍 42과원의 결실 총수는 당금귤 1,050개, 감자 48,947개, 금귤 10,831개, 유감 4,785개, 동정귤 3,364개, 산귤 185,455개, 청귤 70,438개, 유자 22,041개, 당유자 9,533개, 등자귤(橙子橘) 4,369개, 석금귤(石金橘) 1,021개, 치자 17,900개, 탱자껍질[枳殼], 탱자[枳實] 2,225개였다.

과원에서 충당하지 못한 감귤의 공물 수량의 부족분은 민호에 부과하여 채웠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그 수를 헤아려 표지를 달아 조금이라도

www.kci.go.kr

축나면 징속하게 하고 관부까지 운반해 오는 기한을 넘기면 형벌이 엄하여 민호에서는 나무 심기를 꺼리고 심지어는 뽑아버렸을 만큼 징발이 가혹했던 것으로 보인다.[74]

둘째, 진상을 위한 짐승 사냥과 관련한 행사도이다. 「교래대렵(橋來大獵)」은 1702년 10월 11일 제주목 교래에서 사냥하는 그림으로, 당시 사냥에는 삼읍 수령과 감목관이 참여하였고, 말을 타고 사냥하는 마군 200명, 보졸 400여명, 포수 120명이 동원되어 사슴 177구, 돼지 11구, 노루 101구, 꿩 22수를 사냥하였다(도15). 「비양방록(飛揚放鹿)」에는 1702년 10월 11일 교래의 사냥에서 생포한 사슴을 1703년 4월 28일 비양도에 옮겨 방사한 것을 묘사하였다. 제주목 서면 53개 마을이 상세히 표시되었고, 제주읍성의 서문에서 명월진에 이르는 지형이 묘사되었다. 내의원에서 소용되는 사슴 꼬리나 혀 한 개 값이 면포 20-30필에 이르러 진상을 위해 사슴의 방목이 필요하였고[75], 진상용 생사슴을 비양도에서 방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슴이 귀하여 구하기 어려울 때는 제향용을 제외하고 탄일이나 정조(正朝) 등의 진상은 노루로 대신하기도 하였다.[76]

셋째, 군사훈련 및 군기 점고와 관련한 행사도이다. 1702년 제주의 무사(武士)는 1,700여명의 규모였다. 「화북성조(禾北城操)」는 1702년 10월 29일 화북진에 소속된 성정군의 군사훈련을 묘사한 것이다. 제주판관이 감영으로 돌아올 때까지 군관 이정진 등 4명이 배행하였다. 조방장은 이희지(李喜枝)이고, 성정군 172명의 군사훈련과 군기집물을 점검하였다. 별도포에 성창이 있고, 성 서쪽에 연대가 위치한 입지를 보여준다. 「수산성조」는 11월 2일 정의현감 박상하가 참여하여 조방장 유효갑, 성정군 80명, 군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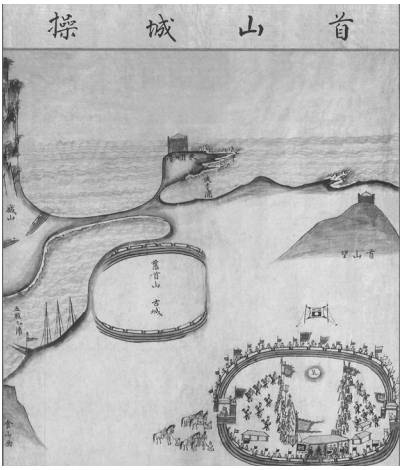
---

74 『세조실록』 2권, 1년 12월 25(병인).
75 『중종실록』 1권, 1년 10월 3일(무신); 『중종실록』 권55, 5년 6월 26일(정축).
76 『명종실록』 8권, 3년 10월 9일(경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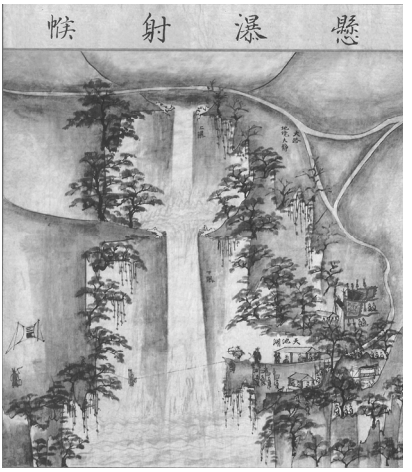
www.kci.go.kr

물을 점검한 것과 수산고성의 옛 위치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도16). 「모슬점부(摹瑟點簿)」는 11월 13일 군관 전만호(前萬戶) 유성서가 대신 점고하였고, 조방장은 오세인, 기병과 보병은 24명, 군기집물의 장부를 대조하여 점고한 것을 그렸다. 대정현에서 모슬포진으로 이동하는 군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차귀점부」는 11월 13일에 군관 사과 홍우성이 대신하여 조방장 김국후, 방군 기마병, 보병 20명, 군기집물 장부를 대조하여 점고한 것을 묘사하였다.

넷째, 문무과 인재 선발과 관련한 행사도이다. 1702년 제주에는 훈장 17명, 교사장 68명을 분치하였고, 유생은 480명이었다. 문과 시험과 관련하여 「승보시사(陞補試士)」는 윤6월 17일부터 3일 동안 성균관 유생들이 치룬 소과 초시로, 3일간 시취(試取)하여 응시인 12명 중 최종적으로 고시(古詩), 부(賦) 각 1명씩 2명이 입격하였다. 제주에서 승보시는 1639년부터 실시되었고, 1675년부터는 제주목사가 문관으로 차임할 때 승보시를 시행하였다. 선발 인원은 1년에 2명을 넘을 수 없었고, 입격한 유생에게는 식년 생원이나



도16-「수산성조」,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도17-「현폭사후」,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www.kci.go.kr

진사시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77]

한편 무관의 시사(試射)나 강사(講射)와 관련한 그림도 있는데, 여기서 시사는 활 잘 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여 인재를 뽑는 일이다. 먼저 「별방시사(別防試射)」는 11월 1일 별방진에서 활쏘기 시험을 보는 장면으로 교사장(敎射長)은 10명, 사원(射員)은 208인이었다. 「명월시사(明月試射)」는 11월 14일 명월진성에서 시취하는 그림으로 우면(右面) 교사장 17명, 사원 141명이 참여하였다. 「제주사회(濟州射會)」는 11월 18일 활쏘기에 앞서 관덕정 앞에 정렬해 있는 모습으로 제주목사, 중군 제주판관 이태현, 대정현감 최동제, 정의현감 박상하와 군관 15명, 주무(州武) 23명과 각 청의 관리들이 정렬해 있다. 관덕정은 18칸 규모로 통영의 세병관에 버금가며, 평상시 무재(武才)를 시험하던 곳이다.

강사(講射)는 시험관이 유생과 사원(射員)을 대상으로 경전을 암송시키고, 활쏘기를 시험하던 일이다. 「정의강사(旌義講射)」는 11월 4일 정의현에서 시취하는 장면으로 도훈장은 유학 고세웅, 각 면 훈장 5명, 강유(講儒) 166명, 사원은 87명이었고, 「대정강사(大靜講射)」는 11월 12일 대정현에서 시취하는 모습으로, 대정현의 도훈장은 전현감 문영후, 각면의 훈장 5명, 각면 교사장 5명, 강유 42명, 사원 21명이었다.

그밖에 사후(射帿)는 제주목사가 여러 지방관을 거느리고 활을 과녁에 쏘던 일로, 『탐라순력도』에서는 이러한 사후가 주로 폭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흥미롭다. 「천연사후(天淵射帿)」와 「현폭사후(懸瀑射帿)」는 11월 6일 정의현 서귀포의 천제연 폭포와 천지연 폭포에서 활을 쏘는 광경이다(도 17). 천지연 폭포 서쪽 누에머리에 과녁을 세우고 화살이 날아가는 길을 터놓았는데,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어 추인(芻人) 즉 풀로 엮은 허수아비에

77 『續大典』, 禮典, 諸科, 「陞補」; 『典錄通考』 禮典 上, 諸科, 受敎輯錄[濟州陞補設行].

www.kci.go.kr

화살통을 설치하여 폭포의 양쪽에 연결된 줄을 당겨 화살을 수습하였다.[78]

다섯째, 제주 삼읍에서 치러진 양로연을 그린 행사도이다. 1702년 11월 3일 정의현성의 객관 앞에서 치룬 노인잔치로, 80세 이상의 노인 17명, 90세 이상 5명이 참여하였다. 이어 11월 11일 대정현에서 노인잔치는 80세 이상 11명, 90세 1명이 초대되었다. 11월 19일 제주목 망경루 앞에서 노인잔치는 80세 이상 183명, 90세 이상 23명, 100세 이상 노인 3명이 참석하였다. 목사 이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의현감 문영후와 군관 15명, 전찰방 정희량이 배석하였다. 그 맞은편에 노인들이 좌정한 가운데 무대에는 관기들과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무동들이 춤을 추고 있다. 이때 경로연에 참석한 사람은 80세 이상 211명, 90세 이상 29명, 101세 2명, 102세 노인 1명이었다. 『남환박물』에서 이형상이 제주에는 질병이 적어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고 했던 것과 충암 김정(金淨, 1486-1521)이 말한 바와 같이 수성(壽星)이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나이가 80-90세에 이르는 자가 많다고 했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79]

여섯째, 조정에 배례하는 행사도이다. 「대정배전(大靜拜箋)」은 11월 11일 대정현에서 숙종에게 전(箋)을 올려 하례하는 뜻을 표하는 지방관의 배전의식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건포배은(巾浦拜恩)」은 11월 20일 향품(鄕品) 문무관 300명이 관덕정 앞과 건입포(巾入浦) 북쪽을 향해 조정에 배례하는 모습으로, 제주 각 마을의 신당과 사찰이 불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불탄 신당은 129곳, 사찰은 5곳이며 무격(巫覡) 285명은 농업에 종사하도록 조치하였다(도18). 이는 이형상이 『탐라순력도』 서문에서 "도민이 임금의 은혜에 감동하여 건포에서 배례하기에 이르렀고, 음사(淫祠)를 모두 태워 지금은 무격(巫覡)에 종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78 이익태, 『탐라지』, 「천지연」.
79 이형상, 『남환박물』, 「誌俗」.

www.kci.go.kr

더 필요 없을 것이다."고 하였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면이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의하면, 제주인들의 풍속에는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신사(神祀)를 설행하고, 매년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무당과 박수가 신둑(神纛)을 받들어 나희(儺戱)를 하였다. 또한 징과 북을 치며 깃발과 창검을 앞세워 마을을 드나들면, 관원 이하 모두 의복과 재곡(財穀)을 내놓아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풍속은 1841년 이원조가 재임할 당시까지도 각 면에 무당과 박수의 기도를 금지하는 방을 걸어 유시할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80] 이러한 사적인 음사와 별도로 한라산 산신제, 풍우뇌우제, 해신제, 성황제, 여제(厲祭)는 제주목사가 직접 주관하여 엄격하게 구분하였다.[81]

일곱째, 전최(殿最)는 제주목사가 지방관의 실적을 1년에 두 번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상은 최(最), 하는 전(殿)이라 하였다(도19). 「제주전최(濟州

도18-「건포배은」,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도19-「제주전최」,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80 이원조, 『탐라록』, 신축(1841) 4월 28일, 「以本島民事 報備局文」.

81 『일성록』 정조 17년 11월 24일(계축); 이원조, 『탐라록』 상, 신축(1841) 7월 26일, 8월 4일, 8월 7일; 『탐라록』 중, 임인(1842) 5월 12일.

www.kci.go.kr

殿最)」는 11월 17일 제주목사 이형상이 3부(部) 6사(司) 30초(肖)로 구성된 속오군과 마대(馬隊)로 구성된 지방군대의 삼부 천총, 9진 조방장, 6사 파총, 초관 30명, 별장, 성장(城將) 8명, 교련관 13명, 기패관(旗牌官) 94명, 도훈장 유학 양유혁, 각면 훈장 8명, 각면 교사장(敎射長) 22명, 강유(講儒) 302명, 사원 322명을 대상으로 전최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당시 제주 지방관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2. 지방관의 순력과 명승

제주목사 이익태는 1694년 6월 부임하였고, 그해 9월 9일부터 19일까지 제주목을 출발하여 조천관을 거쳐 정의현, 대정현의 주요 점고 장소와 명승을 11일 동안 순력하였다. 그는 순력의 결과물로 『탐라십경도』를 제작하고 이를 병풍으로 장황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쓴 서문에서 "수년 동안 제주를 두 차례 순력하면서 풍속을 물어보는 겨를에 소위 볼만한 곳으로 이전 사람들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을 자세히 조사하고 두루 밟고 건너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중에서 뛰어난 10경을 화가[龍眠]의 손을 빌려 형상을 본떠 그려내 작은 병풍을 하나 만들고 상단에 그 사적을 서술하여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82] 이는 17세기 명승유람의 유행과 함께 지역의 지리적 정보 수집과 주변 경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람의 감흥을 후일에도 즐길 목적으로 실경산수화가 본격적으로 그려진 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83] 또한 『탐라십경도』 제작은 남구만이 함경도관찰사로 재임하

82 李益泰, 『知瀛錄』, 「耽羅十景圖序. "…… 余於數載之間, 再度巡歷, 問俗之暇, 所謂可觀處, 前人足跡所未到者, 無不窮搜遍踏濟. 其中最勝十景, 倩龍眠手摹形畵出, 作一小屛, 叙其事蹟于上面, 以便取覽云爾."

83 지방관의 순력 결과로 제작한 실경도는 1605년 1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韓德

www.kci.go.kr

던 시기 이익태가 1671년에서 1672년까지 함경도 고산찰방으로 임명되어 관직생활을 했던 점에서 남구만이 함흥과 관북지역의 십경도를 제작했던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84]

제주를 그린 십경도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탐라십경도』와 『제주십경도』 2점과 교토의 고려미술관 소장 『영주십경도』가 1점 전한다. 모두 17세기 이익태 당시 작품이 아닌 지방화원의 솜씨를 반영하여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모사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제주십경도』는 18세기 후반 『탐라십경도』를 모본(模本)으로 19세기에 모사하고 다양한 채색을 가미하였다. 화면 상단에 사적과 명승의 정보를 서술하고 하단에 그림을 그렸으며, 이익태가 『지영록(知瀛錄)』에서 꼽은 조천관, 별방소, 성산, 서귀포, 백록담, 영곡, 천지연, 산방, 명월소, 취병담 등을 탐라십경에 포함시켰다. 1841년 윤3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조(李源祚, 1792-1871)는 영주십경을 영구상화(瀛邱賞花), 정방관폭(正房觀瀑), 귤림상과(橘林霜顆), 녹담설경(鹿潭雪景), 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峯落照), 대수목마(大藪牧馬), 산포조어(山浦釣魚), 산방굴사(山房窟寺), 영실기암(靈室奇巖)으로 나열하여[85] 기존 이익태의 탐라십경과 비교할 때, 영구(瀛邱: 訪仙門), 사라오름[紗峯], 산장의 목장, 귤림, 산포(山浦) 등이 새롭게 추가되고 조천관, 별방소, 천지연, 명월소가 제외된 점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탐라십경도』, 『제주십경도』와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영주십경도』에는

遠이 순력 도중 화공에게 자신의 순력 지역을 병풍으로 제작하게 하여 거처에 두고 즐겼다는 기록이 전하며, 1610년 삼척부사로 부임한 閔仁伯이 關東圖屛을 만든 기록이 남아 있다. 최립, 『간이집』 권3, 「관동승상록발」; 남구만의 『함흥십경도』, 『관북십경도』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남구만이 함경도관찰사로 재임하던 1671년에서 1674년에 제작되었다. 김현지, 「17세기 조선의 실경산수화 연구」, 『미술사연구』 18(2004), 40-41쪽.

84 이보라(2007), 앞의 논문, 72-80쪽.

85 李源祚, 『耽羅錄』, 「瀛洲十景題畵屛」.

www.kci.go.kr

이원조의 제화시에서 제외된 조천관, 명월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이익태가 꼽은 탐라십경을 그린 작품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경 그림 상단에는 이익태가 『지영록』에 기록한 「탐라십경도서」의 십경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다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탐라십경도』의 「탐라도총(耽羅都摠)」 주기 내용을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본 『영주십경도』의 「탐라대총지도」 주기와 비교할 때, 거의 일치하지만 제주목에서 주요 지명의 거리를 추기하였고, 고원(羔園)은 3곳에서 2곳으로 줄었으나, 국마는 50둔에서 59둔으로 늘었으며 효자와 열녀의 수는 7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영주십경도』가 『탐라십경도』보다 더 늦은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풍을 보면, 『영주십경도』의 「취병담」, 「산방」 등에는 민화 금강산도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악준을 변형한 암산 묘사가 다수 표현되어 19세기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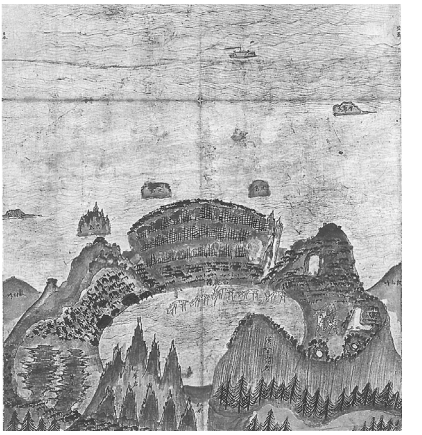
이원조가 영주십경도를 잘 그린 제주 출신 화가 고경욱을 통해 목판본 『탐라지도』를 축소하여 모사하게 하였던 점에서 19세기 제작된 제주 지역의 십경도는 고경욱의 화풍을 반영하였을 개연성이 높다.[86] 국립민속박물관 『제주십경도』는 『탐라십경도』를 모사하여 채색을 더욱 화려하게 가미하였고, 고려미술관 소장 『영주십경도』는 『탐라십경도』의 구성과 내용을 토대로 화가 나름의 화풍으로 각색하였다. 그러나 이들 작품 모두 지방화원의 솜씨로 거의 민화풍에 가깝다. 십경도 위의 주기는 이익태 『지영록』의 내용과 일치하며, 이를 근거로 십경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록담은 한라산의 꼭대기에 마치 물이 가득한 솥과 같은 모양으로 묘사되었다(도20, 도21). 담의 북쪽 모퉁이에 기우단(祈雨壇)이 있다. 백록담에서 보면 멀리 산동성의 등주와 내주, 영파, 안남, 유구, 일본이 어렴풋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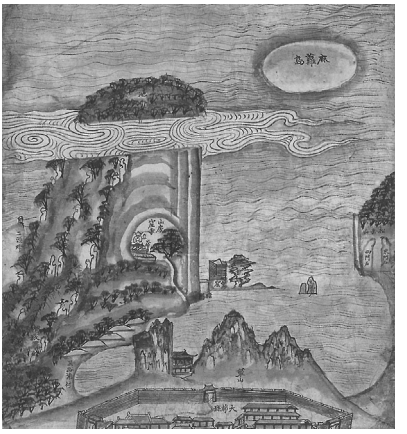
86 李源祚, 『凝窩集』 卷15, 後敍, 「耽羅地圖小識」.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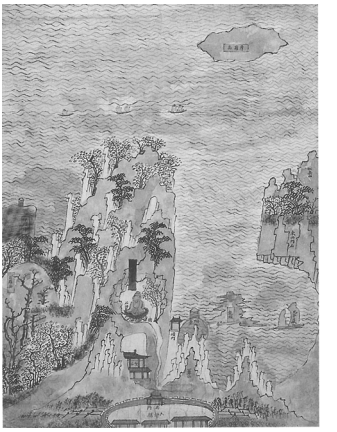
도20-「백록담」, 『탐라십경도』, 18세기 후반, 국립민속박물관



도21-「백록담」, 『제주십경도』, 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도22-「산방」, 『탐라십경도』, 18세기 후반, 국립민속박물관



도23-「산방」, 『영주십경도』, 19세기, 고려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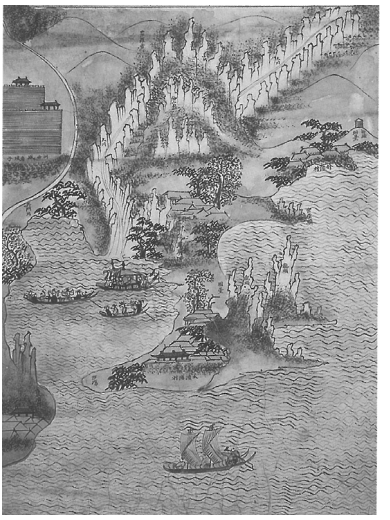
가리킬 수 있는 정도였다. 한라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 남쪽 하늘에 떠오른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고, 이 별을 본 사람은 장수한다는 전설이 전하였다.

산방(山房)은 대정현 동쪽 산이 해변에 우뚝 솟아 있는데, 전체가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매우 기이하고 험하였다(도22, 도23). 산방의 남쪽 산허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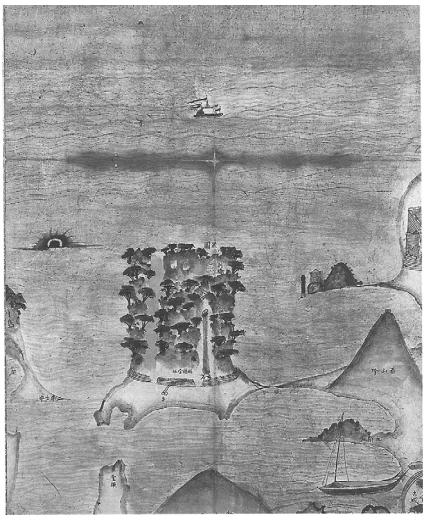
www.kci.go.kr

는 굴이 있어 자연히 석실을 이루었다. 그 남쪽에 암문(暗門)이 있고 그 북쪽에 큰 구멍이 있는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산방 위쪽에는 마라도가 보이며, 그 앞으로 용두연대와 형제암과 송악산도 보인다.

조천관(朝天館)은 제주성의 동쪽에 있는데, 관방의 형승은 9진 중 으뜸이었다. 돌을 메워 성을 높이 쌓아 둘렀고, 공해 수는 10칸으로 성의 동남쪽 모퉁이 가장 높은 곳에 객관인 연북정(戀北亭)이 3칸 규모로 서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조수가 나가면 한쪽은 육지와 연결되므로 거교(擧橋)를 만들어 성문으로 통하였다. 방호소가 설치되어 조방장을 두었고, 정군은 241명으로 봉수 1소, 연대 3소, 포구 3소이다.[87] 포구는 돌을 쌓아 방축하고 수문을 열면 뱃길로 출입하게 하였고, 평소에는 그 안에 배를 정박시켰다. 공마를 싣는 것은 반드시 이곳에서 하였는데, 포구가 넓고 많은 배가 한꺼번



도24-「취병담」, 『영주십경도』, 19세기, 고려미술관



도25-「성산」, 『제주십경도』, 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87 『탐라십경도』, 「조천관」 주기.

www.kci.go.kr

에 출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88]

명월소(明月所)는 제주 서쪽에 있는 애월소를 지나 25리 거리에 있다. 세 개의 굴 중 깊은 것은 거의 30리나 되었다. 비양도 내에 전죽(箭竹)이 잘 자랐다. 취병담(翠屛潭)은 제주성 서문 밖 3리쯤에 있는 대천으로 유입되어 대독포(大瀆浦)로 흘러 들어간다. 배를 타고 오르내리면 그림 속에 있는 듯하였다(도24). 포구와 바다 사이에 사장이 있고, 담의 서쪽에 거대한 바위가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린 모습으로 우뚝 서있는 용두암이 있다.

별방소(別防所)는 조천관에서 해변 동쪽 다랑쉬오름 아래 위치하였다. 동서남에 문이 3개 있고 북수구(北水口)로 조수가 드나들었다. 성 내의 곡창과 군기고가 있고, 봉수 2곳, 연대는 3곳이다. 직군은 매월 6회로 나눠 배를 대는 포구 3곳을 관장하였다. 지미봉(持尾峯)이 동쪽 끝에 솟았고, 외해에는 우도(牛島)가 보인다.

성산(城山)의 수산소(首山所)는 정의현 동쪽 30리 떨어졌다. 사면을 보면 성가퀴 같아 성이라 이름 붙였다(도25). 성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은 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많은 나무와 귤나무가 있어 과원이 되었고, 봉우리 위에 봉수가 설치되었다. 성 내에는 이경록 목사가 세운 진해당(鎭海堂)의 옛터가 있다. 삼면은 바다이고, 한 면은 육지와 연결되었다. 바위굴은 바다 밑으로 관통하였으나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

서귀포는 정의현에서 서쪽에 위치하여 한라산에 바로 닿고, 남쪽 산기슭으로 30리를 꺾으면 땅 끝에 닿는다. 석성 가운데 성에 구멍을 뚫어 물을 끌어들인 우물이 있고, 홍로천(洪爐川) 하류에 탐라국이 원나라에 조천시 후풍처(候風處)가 있었다. 성 동쪽에 절벽이 포구에 깎아 세운 듯한 기암이 좌우로 벌려 있고 가운데 석문으로 큰 시내가 떨어진다. 서쪽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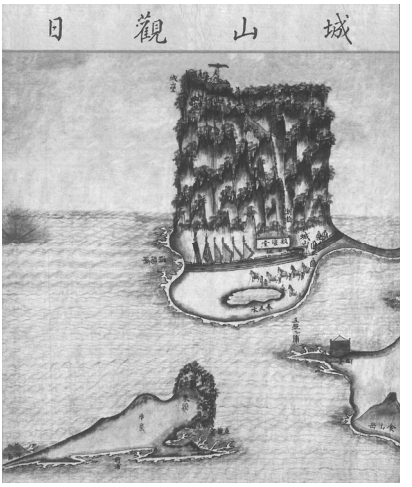
88 이원조, 『탐라록』 상, 1841년 9월 19일조.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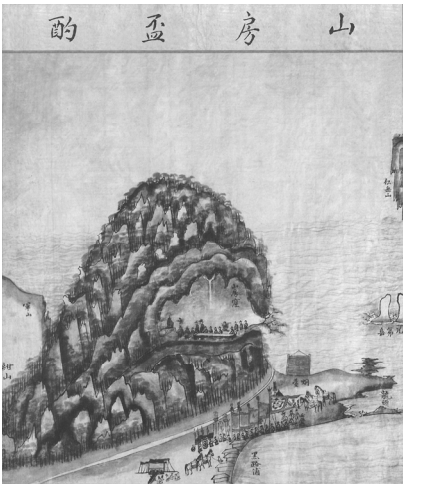
1리 거리에 천지연이 있는데, 석벽 낭떠러지가 병풍처럼 에워쌌다. 동쪽의 폭포는 정방연이다.

영곡(瀛谷)은 한라산 서쪽 산록 대정현의 경계에 있다. 백록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골짜기를 건너면 기암괴석이 층층이 나열된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 목장이 군데군데 있고, 과거 존자암(尊者庵)이 있던 터에는 계단과 초석만 완연하였다. 천지연은 대정현 경계 동쪽에 위치하였고, 폭포가 장관을 이루었다. 신룡(神龍)이 산다고 전하여 가뭄 때마다 기우를 하였다.

한편 『탐라순력도』 내에도 순력의 여가에 방문한 성산관일[성산], 정방탐승[정방폭포], 김녕관굴[김녕굴], 고원방고[과원], 산방배작[산방굴], 병담범주[취병담], 호연금석[화북진] 등의 승경이 포함되었다. 그중 『탐라십경도』의 「탐라도총」, 「성산」, 「산방」, 「취병담」과 비교할 때, 이익태의 『탐라십경도』가 이후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명승 그림에 화법적으로 적지 않은



도26-「성산관일」,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도27-「산방배작」, 『탐라순력도』, 1703년, 제주시청

www.kci.go.kr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성산관일(城山觀日)」의 수직으로 뻗은 성산의 모습과 독특한 화산 암질의 묘사 그리고 해돋이 장면의 연출은 구도는 물론 화법적으도 상호 영향관계가 보인다(도25, 도26). 「산방배작(山房盃酌)」은 산방의 암질을 묘사하는 세부적 표현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산방과 산방굴, 그 우측 상단에 보이는 송악산까지 화면 구도와 경물의 배치는 거의 일치한다(도22, 도23, 도27).

그밖에 「병담범주(屛潭泛舟)」는 취병담에서 뱃놀이를 하는 모습으로 취병담 우측의 민가는 대천(大川) 외리(外里)로 그 우측에는 해녀들이 물속을 유영하거나 잠수하는 모습이 선명하다. 그 주변에는 용두암이 검은 바위로 묘사되었다. 「호연금서(浩然琴書)」는 보길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구도로 중앙의 화북진성을 중심으로 별도포로 들어오는 여러 척의 배 중 가장 큰 배 위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책을 읽는 풍류를 보여준다.

「정방탐승(正房探勝)」은 1702년 11월 5일 이형상이 정방폭포를 찾아 무희를 태우고 선유(船遊)하며 즐기는 장면이다. 길이 80여척, 폭 5척의 정방폭포가 바로 바다로 떨어져 명승을 만들었다.

「고원방고(羔園訪古)」는 11월 6일 대정현성 동쪽에 위치한 고둔과원(羔屯果園) 일대에 있던 왕자구지(王子舊址)를 대정현감 최동제와 정의현감과 함께 탐방한 모습이다. 왕자구지는 고려에 복속 당하기 전 탐라국의 유적이다. 탐라 출신으로 고려왕조에 출사한 고득종(高得宗)이 이곳에 별장을 지어 위세를 과시하였다고 전한다.[89]

---

89 李海朝, 『鳴巖集』 권3, 詩, 「羔屯果園」.

www.kci.go.kr

Ⅴ. 맺음말

본문에서는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와 주기, 실경도의 시기별 특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당시 제주도의 시대상을 파악하려 하였다. 제주 지도는 행정의 중심이 된 관아, 군사적 목적의 관방, 경제적 측면의 목장, 과원 등 주요 인문정보를 반영하여 시기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이다. 1703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목판본 「탐라도」를 비롯하여 1706년과 1709년에 각각 제작된 목판본 「탐라지도」는 제주지도의 보급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탐라십경도』의 「탐라도총」과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촉」 등 기록화 속에 현존하는 제주지도와 18세기 중반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와 같이 군현 지도 속의 제주지도는 지형과 하천 수로의 흐름 등을 비교하여 목판본 「탐라도」의 계보와 이후 제작된 1709년 목판본 「탐라지도」의 계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지도는 모두 남도의 섬과 육지가 제주의 아래를 향하고 위쪽에 류큐국, 안남국, 교지국, 일본국, 중국 산동이나 강남 등 이웃 국가 지명을 표기하였는데 표류 시에 방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주의 공마목장 운영과 그 변화 실태를 파악하였고, 특히 공마의 점고와 관련하여 『탐라순력도』의 세부 내용을 예시하여 소개하였다. 특수 지도인 『목장지도』는 17세기 제주목장의 분포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사료이다.

제주도의 실경을 그린 작품 중 1694년 제주목사 이익태가 제작한 『탐라십경도』는 기록으로 전하며, 조천관, 별방소, 성산, 서귀포, 백록담, 영곡, 천지연, 산방, 명월소, 취병담 등 제주의 절경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말 산수 유람과 명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익태와 같이

www.kci.go.kr

지방관이 순력 과정에서 십경을 직접 선택한 것은 함경도관찰사 남구만이 함흥과 관북 십경을 그린 전통과 맥이 닿아 있다. 현존하는 제주 십경도 3점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모사본으로 추정되지만, 이익태가 정한 탐라십경에 근거하고 있어 그가 제작한 『탐라십경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이 지방화원 김남길을 시켜 1703년에 제작한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의 주요 행사나 가을 순력 등 제주목사의 공적인 활동과 제주의 풍속과 특산물을 비롯하여 명승지 방문 등 기록 이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작품에 나타난 행사기록화는 순력의 목표인 군사 시설 점고와 그 형지 파악, 목장이나 공마의 점고 외에도 순력 동안 감귤의 봉진, 진공을 위한 사냥, 군사훈련과 시사, 승보시,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베푼 양로연 등 18세기 초 제주의 지방관 순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본문은 기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조선시대 제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지도와 지방관이 남긴 기록화 및 실경도 등의 시각적 사료는 물론 그 위에 반영된 인문 정보와 주기를 적극 활용하여 조선후기 제주의 풍속과 문화를 연구하는데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문헌 자료

『經國大典』, 『大典會通』, 『鳴巖集』, 『續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凝窩集』, 『日省錄』, 『濟州邑誌』, 『朝鮮王朝實錄』, 『退憂堂集』, 『弘齋全書』.

2. 단행본

국립제주박물관 편, 『이익태 牧使가 남긴 기록』. 국립제주박물관, 2005.

_____,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남도영, 『濟州島 牧場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이원조 저, 백규상 역주, 『耽羅錄』. 제주문화원, 2016.

이익태, 『지영록』. 제주문화원, 2010.

이찬 편,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7.

이형상, 『耽羅巡歷圖·南宦博物』(영인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9.

_____, 『탐라순력도』(영인본). 제주시청, 1994.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편, 『제주의 옛지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제주시, 탐라순력도연구회 편,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3. 논문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 耽羅誌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1, 2001, 43-81쪽.

김기혁, 「17-18세기 제주도 고지도의 하천 묘사에 나타난 지도 계열 연구」. 『문화역사지리』 30-2, 2018, 46-74쪽.

김오순,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교육과학연구』 8-2, 2006, 133-150쪽.

김태호, 「옛 그림 속 제주의 지형경관 그리고 지형인식」. 『대한지리학회지』 52-2, 2017, 149-166쪽.

김현지, 「17세기 조선의 실경산수화 연구」. 『미술사연구』 18, 2004, 40-41쪽.

노재현 외,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조경학회지』 37-3, 2009, 91-104쪽.

박찬식, 「17·8세기 제주도 牧子의 실태」. 『제주문화연구』 玄旨金榮墩博士華甲記念, 1993, 461-478쪽.

www.kci.go.kr

송성대·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영목장의 범위와 경관」. 『문화역사지리』 13-2, 2001, 143-159쪽.
심승구, 「조선시대 둑제의 변천과 의례」. 『공연문화연구』 28, 2014, 155-201쪽.
양보경, 「제주 고지도의 유형과 특징」. 『문화역사지리』 13-2, 2001, 81-99쪽.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2020, 1-11쪽.
_____,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현황과 유형별 특성」. 『제주도연구』 53, 2020, 187-223쪽.
_____, 「목판본 「탐라지도」의 내용과 지도학적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16-2, 2016, 15-16쪽.
오창명, 「『탐라십경도』의 제주 지명」. 『지명학』 26, 2017, 147-181쪽.
원창애, 「조선시대 제주도 馬政에 대한 소고」. 『제주도사연구』 4, 1995, 45-55쪽.
윤민용,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3-1, 2011, 43-62쪽.
신효승,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역사와 실학』 59, 2016, 103-133쪽.
이보라, 「17세기 말 탐라십경도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17, 2007, 69-90쪽.
이상태, 「제주도 고지도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 1996, 205-232쪽.
이찬,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지리학과 지리교육』 9, 1979, 1-12쪽.
정은주, 「조선후기 繪畫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역사지리』 23-3, 2011, 119-140쪽.
_____, 「고지도에 반영된 조선후기 연안 및 도서지역에 대한 인식」. 『한국고지도연구』 3-2, 2011, 55-72쪽.
_____, 「17세기 《목장지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1-2, 2009, 49-77쪽.

www.kci.go.kr

국문초록

본문에서는 제주 지도와 기록화 및 실경도를 문헌 사료와 비교 검토하여 역사적, 문화사적 관점에서 조선후기 제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와 그 정보, 실경도를 분석하여 시기별 특성과 사적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제주의 시대상을 파악하였다. 관찬 제주지도는 조선시대 제주에 대한 통치와 관방, 경제적 측면의 인문정보를 반영하고 있어 제주에 대한 당시 인식을 엿볼 수 있고, 제주목사가 주관하여 제작한 기록화는 제주의 관아 터와 주요 명승 및 사적을 복원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1702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목판본 「탐라도」를 비롯하여 1706년과 1709년에 각각 제작된 목판본 「탐라지도」는 제주지도의 보급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탐라십경도』 「탐라도총」과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촉」과 같이 기록화 속에 현존하는 제주지도와 18세기 중반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와 같이 군현 지도 속의 제주지도는 지형과 하천 수로의 흐름 등을 비교하여 목판본 「탐라도」의 계보와 이후 제작된 1709년 「탐라지도」의 계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밖에 특수 지도인 『목장지도』는 17세기 제주목장의 분포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제주도의 실경을 그린 작품 중 대표적인 것은 1694년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 1668-1704)가 제주 명승 10곳을 정하여 제작한 『탐라십경도』의 모사본 3점이 전하며, 1702년 제주 일대의 순력을 마치고 1703년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제작한 『탐라순력도』가 현존한다. 『탐라십경도』는 조천관, 별방소, 성산, 서귀포, 백록담, 영곡, 천지연, 산방, 명월소, 취병담 등 제주의 절경을 그린 것으로, 17세기 말 산수 유람과 명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목사 이익태가 순력의 결과로 십경을 직접 선택한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후 부임한 이형상은 명승에 그치지 않고 제주목의 주요

www.kci.go.kr

행사나 가을 순력 등 제주목사의 공적인 활동과 제주의 특산물, 풍속 등을 묘사하여 기록 이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문은 지도, 기록화 및 실경도 등과 같은 시각적 사료를 활용함으로써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조선시대 제주의 풍속과 문화를 연구하는데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20. 6. 22.
심사일 2020. 7. 23.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제주지도(map of Jeju Island), 목장(ranch), 실경도(landscape painting), 명승도(painting of scenic spots)

www.kci.go.kr

Abstracts

Jeju Island Reflected in the Maps and Landscape Paint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Jeong, Eun-joo

This paper tried to understand the change in perception of Jeju Island at that time by analyzing the map, geographical literature, and landscape paintings of Jeju Is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First, the maps exclusively drawing Jeju Island, such as a woodblock-printed copy of "Tamna Map and Writing" produced in 1709 and "Jeju Samhyeon-do" of "Haedong Jido" made in the early 1750s can be identified by reflecting key information like government offices, military facilities, pastoral pastures, and orchards for economic purposes. In addition, the special map, "Ranch Map", provides an important basis for identifying the distribution and location conditions of Jeju ranches in the 17th century.

Among the works that depict the landscapes of Jeju Island, there are the book produced by the Jeju magistrate Yi Ik-tae in 1694 and "Tamna Sullyeok-do" by another Jeju governor Yi Hyeong-sang in 1703. "Tamna Shipgyeong-do" is about Jeju's scenic views. As interest in landscape sightseeing and scenic spots increased in the late 17th century, Yi Ik-tae, the governor of Jeju Island, chose the 10 scenic views. Yi Hyeong-sang, who was appointed to the post since then, describes not only a scenic spot, but also the official activities as a Jeju Island governor, such as the Jeju's major events and autumn provincial tour, and thus provides diverse information beyond records. Most of the records of the events in the "Tamna Sullryeok-do" show the military facilities and locations for defense and the customs of the Jeju people as the goal of inspection tour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addition, horses counting in the ranch is an important event by the Jeju governor including the dedication of tangerines, hunting, military training, the preliminary examination of Seonggyun-gwan Academy, and banquet for the senior citizens over 80.

This paper will be possible to supplement blind spot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by literature data through actively utilizing visual data such as maps, documentary, and landscape paintings.

www.kci.go.kr

www.kci.go.kr